

---

# ‘ㅎ’ 介入에 관한 考察

— 濟州 方言을 中心으로 —

이를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宋 相 助


指導教授 金 洪 植


1982 學年度

# 宋相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徐漢錫 

副審: 金洪植 

副審: 金光雄 

1982學年度

= 目 次 =

一. 序 論 .....	11
1. 研究의 動機와 目的 .....	11
2. 研究 範圍와 方法 .....	11
二. 本 論 .....	12
I. 濟州 方言에서 ‘ㅎ’ 介入 .....	12
1. 資料 提示 및 分析 .....	12
가) 로마字 表記 .....	12
나) 한글 表記 .....	15
다) 体言과 助詞 .....	18
2. 問題의 提起 .....	19
3. 濟州 方言에서 ‘ㅎ’ 介入에 關한 先行研究 紹介 및 分析 .....	20
4. 音韻의 變化 .....	21
5. ‘사잇소리’의 音價 및 機能 .....	24
6. ‘ㅎ’의 音價 및 機能 .....	30
7. 音의 長短과 休止의 機能 .....	31
8. 濟州 方言에서의 ‘ㅎ’의 介入 .....	36
II. 文献語에서 ‘ㅎ’ 介入 .....	40
1. 資料의 提示 .....	40
2. 先行研究 紹介 및 分析 .....	41
3. 資料의 分析 및 考察 .....	45
4. 聲調와 助詞 .....	48
5. 尊稱呼格助詞 ‘-하’에서 ‘ㅎ’의 機能 .....	49
三. 結 語 .....	50
參 考 文 獻 .....	52
Summary .....	54

# 一. 序 論

## 1. 研究의 動機와 目的

古語辭典과 本朝語辭典을 찾아 보면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 前者에는 ‘ㅎ’, 後者에는 ‘-ㅎ’로 表記되어 있다.<sup>1)</sup> 勿論 編者들의 理論에 依한 것이지만, 學界에서도 ‘ㅎ末音体言’이나 ‘ㅎ’을 取하는 特殊名詞, 또는 ‘ㅎ’插腰音 等の 異見이 있어서, 古語를 배우는 사람을 모시는 매우 不便한 일로 보아진다.

濟州 方言에 關해서는 國語學界에서도 많은 關心을 쏟고 있고, 이미 音韻·形態面에서 ‘ㅎ音의 維持, aspirata 現象, ㅁ, ㅂ의 ㅅ, ㅆ로 激音化’<sup>2)</sup>, ‘ㅎ助詞의 殘影, ㅎ사이시옷의 多量保存’,<sup>3)</sup> ‘古語·古音의 古形保存’<sup>4)</sup> 等の 見解가 나와 있고, 古語의 一致하거나 비슷한 語彙들만을 밝히고 있다.

이와 關하여 勿論라도 濟州 方言에는 文獻語에 더욱 接近된 素地가 많다고 보며, 濟州 方言에서 複合語를 形成할 때 後行語 첫소리를 有氣音(aspirata) 化시키는 ‘ㅎ’에 關하여 先行研究를 一部 補充하고, 濟州 方言을 通해서 얻어진 見解를 文獻語에 對比시켜, 같은 條件에서 有氣音化하는 ‘ㅎ’에 關해서 問題를 解決하는 데 若干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데 目的을 두었다.

## 2. 研究 範圍와 方法

本紙의 範圍는 先行 体言 末音의 有氣音 卽, ‘母音, ㅏ, ㅓ, ㅗ, ㅛ’와 後行語 初音 첫소리의 發音·發聲音 즉, ‘ㄱ, ㄷ, ㅌ, ㅈ’가 올 때 ‘ㅎ’이 輸入으로 有氣音(aspirata) 化하여 ‘ㅏ, ㅓ, ㅗ, ㅛ’가 되는 것과, 体言과 助詞가 連結될 때 ‘ㅎ’의 輸入으로 일어나는 現象을 밝히는 것으로 局限한다.

1) 李龍德(1960) ; 『古語辭典』, (서울: 東明出版社), p.170.

2) 李龍德(1977) ; 『本朝語辭典』, (서울: 延世大學校出版社), p.183.

3) 李龍德(1977) ;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文選』, (서울: 民族書館) p.129, 131, 142.

4) 李龍德(1977) ; 『中央國語文法』, (서울: 乙酉文化社), p.27.

5) 李龍德(1968) ; 『濟州島方言의 特異性(F)』, 『제주도 33』, (제주: 濟州道)p.163.

6) 李龍德(1977) ; 『得露文』, p.149.

7) 李龍德(1977) ; 『제주도방언』 『국어교육연구(2)』, (제주: 제주도교육연구), p.17.

8) 李龍德(1980) ; 『古語史概說』, (서울: 一潮閣), p.81.

9) 李龍德(1977) ; 『濟州島方言集』, (서울: 서울신문사), p.179.

10) 李龍德(1970) ; 『제주도방언연구』, (제주: 동원사), pp.229~330.

考察의 方法으로는 本論의 I에서는 方言을 通해 複合語를 이룰 때 ‘ㅎ’의 介入되는 現象을 밝히고, II에서는 文獻語를 方言의 考察 結果에 對比시켜 밝혀 보고, 先行 研究는 方言에 關한 것은 I에, 文獻語에 關한 것은 II에 넣어 밝힌다. 先行 研究들의 排列은 發表 年代順으로 하려 하나 原本 入手가 어렵고 하여 缺禮가 되는 點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ㅎ’ 介入의 原因은 先行語와 後行語의 連結過程에서 自生的, 偶發的인 現象으로 보고, 音聲的 音韻論的인 立場을 取하고, ‘介入된 ㅎ’은 複合語를 形成할 때의 機能을 用例에 依해서 밝히려 한다.

文獻語의 体言과 助詞에서의 ‘ㅎ’의 介入은 音의 長短과 聲調에 바탕을 두었다.

參考로 引用한 資料는 玄平孝教授의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上))(1962)과 玄容駿教授의 「ㅎ挿腰音에 대하여」(濟州文化 I, 1957)에서, 文獻語의 資料는 南廣祐教授의 「國語學論文集」(1960)과 鄭然榮教授의 「國語聲調에 關한 研究」(1981)에서 引用하였음을 謝意와 함께 밝히려 한다.

## 二. 本 論

이 章에서 考察은 I項에서는 方言, II項에서는 文獻語를 方言과 對比시켜 考察한다.

### 1. 濟州 方言에서 ㅎ 介入

#### 1. 資料 提示 및 分析

方言에서 体言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行語 体言 첫소리가 破裂·破擦 平音이 複合語를 이룰 때 ‘ㅎ’이 介入되어 後行語 첫소리가 有氣音(aspirata)化한 것들의 語例를 提示하면

#### 가) 로마字 表記

- 1) 文獻語所謂 ‘ㅎ’ 末音体言과 一致하는 것.
  - ㉔ kʌsʌl--khə, --khət : 가솔에 끼누어 들어는 곡식 따위.  
kʌsʌl--čha ma : 가솔 장마
  - ㉕ ko--phaŋ : 庫房
  - ㉖ kʌrɛ--phat : 그루밭
  - ㉗ nʌmʌl--khuk : 나물국  
nʌmʌl--čhirum : 나물 기름
  - ㉘ nʌi--kʰori : 네거리(四街)

- 28 tol—čhil : 툐:—질  
 tol—khiŋi : 툐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딱딱한 게(蟹)  
 tol—phe : 툐배  
 tol—tham : 툐담  
 tol—thom : 툐도미
- 36 ma—phɔrɔm : (南風)
- 42 mil—čhɔbegi : 밀 수제비  
 mil—čhe : 참밀(小麥)의 겉껍질  
 mil—phat : 밀밭  
 mil—phokčɛŋi : 밀복(물고기의 一種:筆者)
- 44 parw—čhil : 바다에서 해산물 주로 고기를 잡는 일  
 parw—čhil : 上同  
 parw—khogi : 海魚(바닷고기)
- 50 sɔl—khažuk : 살가죽  
 sɔl—khogi : 살고기
- 53 su—čhie : 수키와 su—khe : 雄犬(수개)  
 su—khət : 수컷  
 su—thot : 수퇘(雄豚)  
 suŋ—khe : 雄犬(수개)
- 61 jo—phaŋsək : 피륙으로 짜서 만든 방석
- 65 an—phat : 안팎  
 an—kharɔm : 한 부락 내에서 안(內)쪽에 위치한 동내(洞內)
- 67 am—khe : (牝犬)암개  
 am—khəmwi : (牝蛛)암—커미  
 am—khət : 암컷  
 am—khoneŋi : 암:코양이  
 am—thɔk : (牝鷄)암탉  
 am—thojači : (牝豚)암돼지  
 am—tholčhəlgwi : 암돌쩌기  
 am—thot(牝豚) : 암돼지
- 69 hɔrinžo—phap : 차조밥  
 čo—čhe : 조의 겉껍질  
 čo—khogori : 조이삭

čo-khokmegi :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 버린 남은 줄기

(次자는 南広帖教授의 「國語學論文集」의 資料番號임)

2) 後行語 첫소리가 單獨으로 쓸 때도 有氣音으로 나는 것.

čvpke-čhin : 멩에 양 편에 꿰어 목 아래로 휘어진 나무 가지를 집어 매는 끈

čaŋ-pho : 장보(長—)

həri-khan : 대청(大廳)

imul-khan : 거루 따위 배의 안에 맨 앞쪽 간(間)

komul-khan : 거루 따위 배의 맨 뒤쪽 간(間)

momŋi-čhe : 메밀의 길겹질

paži-phen : (一瓶)술을 고아낼 적에 소줏고리의 컷대에 받는 병

pori-čhe : 보리쌀의 길겹질

sagi-phen : (沙器瓶) 사기병

son-čhin : 신줄 쇠꼬리채에 매어진 끈

sul-phude : 술—푸대

tedel-pho : (大—)대:들보

twŋthwe-čhin : 한 끝은 소의 멩에에 매어지고 한 끝은 소의 등 위의 한 태줄에 매어  
지는 끈.

twŋži-čhin : 동자의 끈

3) 後行語 첫소리가 複合語를 이룰 때만 有氣音(aspirata)化 하는것

čhoga-čhip : (草家) 초가집

wega-čhip : (外家) 외가집

mokkan-čhip : (沐間—) 목간집

muphan-čhip(賀販—) 쇠고기, 돼지고기 따위를 파는 집

pen-čhip : (病—)병—집

ppaŋ-čhip : 빵집

pulmi-čhip : 대:장—간

sadon-čhip : 사돈—집

ssol-čhip : 쌀—집

sul-čhip : 술—집

nun-thok : (一毒)눈—독

son--thok : (一毒)손--독

karɛm--phat : 동내(洞內)안에 있는 밭

ujəŋ--phat : 터알

indoŋ--čhul : 인동--덩굴

kamžə--čhul : 고구마--덩굴

čim--phe : 짐을지는데 쓰는 줄

čom--phak : 나무를 동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mɔl--čhilme : 말--길마 말(馬)짐을 실을 적에 등에 얻는 길마

mɔl--khusul : 털구슬

☞ mɔl--čhip : 말--집

☞ mɔl--phage : 말--방아 연자방아

mɔm--čhizi : 마른 모자반을 간장에 담가 짠 맛이 든 후에 먹는 반찬

momɔl--čhɔbegi : 메밀--수제비

naŋ--thomak : 나무--토막

nzi--čhirɛm : 어린애나 소가 입에서 침(唾)을 질질 흘리는 것

sanaŋ--khe : 사냥--개

san--thot : (山--)산돼지

ssil--phap : 쌀 : 밥

tam--čhil : 담을 뛰어 넘는 일

ə--čhɔnak : 어제 저녁

əl--čhin ak : //

ə--čhin ak : //

ən--čhin ak : //

ə--čhɔnjak : //

(以上은 李 孝教授의 『濟州島方言 研究』(上)에서 뽑은 89語彙와 ☞表는 筆者가 더 보던 것임)

### 나) 한글表記

#### 1) 一母音 아래서

1. 수ㅎ개) 수개(牡犬)㉠
2. 수ㅎ깃) 수컷(牡 짐승)㉡
3. 수ㅎ고맹이) 수묘맹이(牡猫)㉢
4. 수ㅎ) 수푹(수탉)㉣
5. 수ㅎ방애기) 수핑애기(수평아리)㉤



6. 수웅벌 > 수벌(雄蜂)㉠
7. 수웅돌처귀 > 수틀처귀㉠
8. 뒤웅집 > 뒤집(後家)㉠
9. 뒤웅거름 > 뒤커름(뒤틀거름·退步)㉠
10. 드르웅개 > 드르케(野犬)㉠
11. 드르웅밭 > 드르판(野田)㉠
12. 조웅밥 > 조팍(粟飯)㉠
13. 조웅밭 > 조판(粟耕田)㉠
14. 조웅범벅 > 조팍벅㉠
15. 조웅공래기 > 조콩래기(쌀알만 떨어버린 조이삭)㉠
16. 조웅마술 > 조카술(粟秋)㉠
17. 불미웅집 > 불미칩(대장간)
18. 처가웅집 > 처가칩(妻家)㉠
19. 마웅빈름 > 마풍름(南風)㉠
20. 그지계웅저녁 > 그지계저녁(再昨夜)

2) — 나 아래서

21. 안웅집 > 안침(內側家 혹은 안사집) 안찻㉠
22. 안웅밖 > 안팎(內外)㉠
23. 산웅돛 > 산툃(山豚)㉠
24. 언웅지낙 > 언치낙(昨夜)  
어제+저녁 > 언웅지낙 > 언치낙

3) — 리 아래서

25. 돌웅마를 > 돌카를(石粉)㉠
26. 돌웅마래 > 돌카래(石磨=돌맷돌)㉠
27. 돌웅자귀 > 돌차귀(돌다듬는 자귀)㉠
28. 돌웅질 > 돌칠(돌던지기)㉠
29. 말웅피기 > 말피기(馬肉)
30. 말웅방애 > 말광애
31. 길웅거름 > 길커름(길거름=路步)㉠
33. 밀웅밥 > 밀팍(밀밥)㉠
34. 밀웅범벅 > 밀팍벅(밀범벅)㉠
35. 밀웅국쉬 > 밀국쉬(밀가루로 만든 국수)㉠

36. 밀ㅎ반 > 밀판(밀밭)㉔  
 37. 밀ㅎ즈배기 > 밀츠배기(밀가루를 찌어서 둥글게 휘어 만든 음식)㉔  
 38. 알ㅎ가름 알카름(下洞)  
 39. 물ㅎ개 > 물캐(咬犬)  
 40. 물ㅎ돛 > 물돛(水豚)=살이 찌어 있는 洋豚  
 41. 물ㅎ도새기 > 물토새기(물돛의 새끼)  
 42. 물ㅎ것 > 물컷(이·버룩·모기따위의 총칭)  
 43. 물ㅎ구시 > 물쿠시  
 44. 모밀ㅎㅁ를 > 모밀ㅁ를(밀가루메)※  
 45. 모밀ㅎ국취 > 모밀국취(모밀국수)  
 46. 모밀ㅎ즈배기 > 모밀츠배기  
 47. 모밀ㅎ반 > 모밀판(메밀밭)  
 48. 녹밀ㅎ반 > 녹밀판(나물 반)㉔  
 49. 녹밀ㅎ국 > 녹밀국(나물국)㉔  
 50. 살ㅎ피기 > 살피기(肉=살코기)㉔  
 51. 살ㅎ도막 > 살토막(살토막)㉔  
 52. ㅁ슬ㅎ밭 > ㅁ슬판(秋田)㉔  
 53. ㅁ슬ㅎ것 > ㅁ슬컷㉔  
 54. 메날ㅎ저녁 > 메날저녁(毎日宵)  
 55. 오늘ㅎ저녁 > 오늘저녁(今宵)  
 56. 될ㅎ저녁 > 될저녁(來日저녁)  
 57. 술ㅎ병 > 술병(酒瓶)㉔  
 58. 물ㅎ병 > 물병(水瓶)㉔  
 59. 술ㅎ집 > 술집(酒幕)  
 60. 술ㅎ부대 > 술부대(술을 많이 먹는 사람=酒袋에서 나온 말)㉔  
 61. 멸ㅎ것 > 멸것(멸치것=鰯魚해)  
 ※ 물ㅎ배염 > 물괘염(물뺨)

4) ㅁ 아래서

62. 짐ㅎ배 > 짐괘(背繩=짐지는 배)  
 63. 암ㅎ배 > 암괘(背繩의 一種)㉔  
 64. 암ㅎ돛 > 암돛(北豚)㉔  
 65. 암ㅎㅁ > 암툽(암탄)㉔  
 66. 암ㅎ빙애기 > 암빙애기(암빙아리)㉔

- 67. 암ㅎ돌처귀) 암톨처귀㉑
- 68. 소곰ㅎ죽) 소곰죽(소곰죽)
- 69. 암ㅎ깃) 암깃㉑
- 70. 줌ㅎ박) 줌팍(掌+瓢바가지)

5) -ㅇ 아래서

- 71. 낭ㅎ도막) 낭토막
- 72. 낭ㅎ질) 낭질(나무오르기 木昇)
- 73. 빵ㅎ집) 빵침

(以上은 玄容駿教授의 〈ㅎ插腰音에 對하여〉중 体言과 助詞, 体言과 用言語尾의 連結에서 ‘ㅎ’ 介入은 除外하고, ㉑는 所謂‘ㅎ’ 末音体言의 表示, ㉒는 先行語가 漢字語이거나 後行語가 漢字語 表示이고 ※는 筆者가 붙인 것임.)

#### 다) 体言과 助詞

- ① ㅎ나ㅎ도) ㅎ나토(하나도)
- ② 나ㅎ도) 나토(年歲)
- ③ 우회) 위에 또는 위의
- ④ 산 숨회도(산 속에도)
- ⑤ 드르헤도(말에도)
- ⑥ 질헛

(以上의 ①, ②는 玄容駿教授의 上揭論文에서, ③은 『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서울: 新正文化社)에서, ④, ⑤는 金榮敦教授의 『濟州島民語研究』(上)(1965)(서울: 三潮閣)에서, ⑥은 김성기先生의 『오돌오기』(1960)(제주: 우정출판사)에서 뽑았음)

앞에서 提示한 가), 나), 다)를 보면 文獻語에서 所謂 ‘ㅎ’ 末音体言에 該當되는 것도 相當數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또 漢字語가 複合語를 이룰 때 ‘ㅎ’이 介入되는 例도 많이 發見된다.

그리고, 單獨으로 쓰일 때도 이미 有氣音(aspirata)化한 것은 ‘chin, pho, khan, che, phen, phude 등’도 보이므로 이들은 다른 말과 連結될 때에는 의당 有氣音化한 形態로 나타나며, ‘집, 독(毒), 밭, 줄, 배(繩), 등’은 單獨으로 쓰일 때는 一般的으로 平音으로 發音되나 이 말들의 앞에 어떤 体言이 오면 平音이나, 硬音 또는 有氣音化하기도 한다. 그리고 助詞에 ‘ㅎ’이 介入된 形態는 불과 여섯만 文獻에서 찾았으나 實際 言語生活에서는 더 나타난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⑥을 除外하고는 모두 所謂 ‘ㅎ’ 末音体言에 屬하는 것이며, 方言에서 体言과 助詞가 많이 發見되지 못하는 것은 文獻에 定着하지 못한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앞서 提示한 資料 以外에도 더 發見되는 例는 삼판의 시연(459), 왕대크르(905), 찬크르(305), 텔랏(479), 서당랏(711), 부림패, 강당장킵(569)(玄容駿教授의 『濟州 俗語 資料事典』에서 引用)등이며 以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朴用厚先生도 82例의 語例를 『제주방언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 2. 問題의 提起

앞에는 資料 가), 나)는 濟州 方言에서는 複合語를 形成할 때 後行語 첫소리가 有氣音化 되었지만, 꼭 같거나 비슷한 音韻環境인대도 어떤 말은 平音으로 나는 것, 硬音으로 나는 것, 또는 有氣音으로 나는 것이 있어서, 어떤 要素가 이들을 平音·硬音 또는 有氣音으로 나게 하는가.

萬一 어떤 要素가 介入되었다면, 그 要素들은 무엇이며, 어떤 機能을 하는가. 또는 先行語 末音, 即 有聲音 自体가 後行語 첫소리를 平音, 硬音, 有氣音으로 나게 하는가 등이 問題가 될 것이다.

實際 音語現狀에서 平音으로 나는 것은 ‘물미질’ ‘조집’(粟稔) ‘물질’ 등이며, 硬音으로 나는 것은 ‘뒤구석’ 뒤구석 ‘안구말’ 안꾸말, ‘안주인’ 안꾸인, ‘문고당’ 문꾸당’ 등 硬音으로 나는 것은 有氣音으로 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난다고 推定되며, 앞으로는 濟州 方言에서는 複合語를 形成할 때는 ‘자잇소리’의 影響으로 硬音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든 資料 가), 나)에서도 地域間, 世代間에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筆者는 먼저 ‘물미질’ ‘조집’등 平音으로 나는 것은 先行語 末音과 後行語 첫소리 사이에 休止(pause)나 音長의 介入에 依해서만 可能하고, 그렇지 못하여 緊密連接(closed juncture; 閉密連接)일 때는 先行語 末音의 有聲音이므로 後行語 첫소리는 原音인 無聲破擦音이 有聲音化하여 제 音價를 保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에는 ‘뒤구석’ 등은 先行語 末音과 後行語 첫소리 사이에 休止나 또 音長의 介入되었을 때는 原音대로 ‘뒤구석’이 可能하다, 역시 緊密連接일 때는 先行語 末音과 後行語 첫소리 사이에 어떤 要素(音素, 韻素, 形態素) 등의 介入이 不可避하게 되고, 그리므로 後行語 첫소리는 變하여 硬音이 되든지, 有氣音이 되어진다고 일단 보고자 하여 硬音으로 되는 境遇는 所謂 ‘자잇소리’(스, 응, 님, 드, 그 등)의 介入이고 有氣音化하는 경우는 ‘응’의 介入으로 보고 뒤에서 밝히고자 한다.

### 3. 濟州 方言에서 ‘ㅎ’介入에 關한 先行研究 紹介 및 分析

濟州 方言에서 ‘ㅎ’介入에 關한 研究는, 玄容駿教授의 体系的이고 綜合的인 <ㅎ插腰音에 對하여>가 있고, 李崇寧教授와 朴用厚先生, 金公七教授의 見解가 있다.

#### 玄 容 駿 教授<sup>6)</sup>

体言과 体言, 体言과 助詞가 複合語를 이루어 後行体言 첫소리가 有氣音(aspirata) 化한 語例를 87個 語彙나 들고는 文獻語에서 ‘ㅎ’이 強化되어 ‘ㅎ’이 되었다며 ‘ㅎ’은 ‘자잇소리’의 機能도 한다고 하고 ‘ㅎ’插腰音이라고 했다. 그리고 ‘ㅎ’이 介入되는 原因은 先行語 末音인 有聲音을 일부 閉鎖하고, 後行語 첫소리를 똑똑히 드러내려는 言語心理에서 일어난 現象으로 보고, 같은 音韻條件에서도 어떤 것은 平音·硬音·有氣音으로 各各 나는 것은 ‘ㅎ’의 弱化, 또는 ‘ㅎ’이 세 音價를 나타냈을 때, 또는 ‘ㅎ’으로 強化되었을 때에 平音·硬音·有氣音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이 ‘ㅎ’음이 插腰되는 語彙들이 大部分 所謂 ㅎ助詞 問題와 關係가 깊다고 보나, 助詞의 ㅎ이 떨어져 나와 插腰됐다고도 볼 수 없으며 体言末音 ‘ㅎ’이 ㄱㄷㅂㅅ과 複合되어 有氣音化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朴 用 厚 先生<sup>7)</sup>

“기름찌(複合名詞) 또는 임자찌(体言)와 토찌(助詞)사이에서 앞찌의 끝 音節이 홀소리 또는 ㄴㅇㅇㅇ 받침으로 끝나고, 뒷찌의 첫음절의 첫소리가 ㄱㄷㅂㅅ인 때에 두 찌 사이에 ㅎ이 들어가야 기센소리(激音)가 되는 것이 많다”고 하고 “ㅎ接腰音은 호린소리(有氣音)와 맑은 소리(無氣音) ㄱㄷㅂㅅ 사이에만 있는 것이다. 이것은 뒷찌의 맑은 소리가 앞찌의 호린 소리로 바뀌어야 호리게 되는 것을 막아 뒷찌를 똑똑히 ㄱㄷㅂㅅ을 소리낼 적에 받침을 세게 내어 보내기 위하여 북침을 달고 숨을 보아서 내어 보냄으로 맑이암아 마찰 작용이 일어나기 커센소리(激音)가 되는 것이다.”

#### 李 崇 寧 教授<sup>8)</sup>

“주로 複合語 形成에서 後行語의 頭音이 aspirata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 출나운 터이다.”

#### 金 公 七 教授<sup>9)</sup>

“複合語의 간지에 接腰音이 介在한 경우다.”

6) 玄容駿(1957); <“ㅎ”插腰音에 對하여>, 『濟州文化』1, (거주: 藝總濟州支社), pp. 86~103.

7) 朴用厚(1960); 상계권, pp. 431~433.

8) 李崇寧(1977); 上揭論文, p. 142.

9) 金公七(1977); 『方言學』, (서울: 正訃出版社), p. 225.

以上에서 ‘插腰音’이나 ‘接腰音’은 一致하는 見解로 볼 수 있겠고, 3)에서 ‘달라운 너’라고 表現된 것은 무엇을 暗示했는지는 모르나, ‘어떤 問題의 解決의 鍵카타를 提示할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 4. 音韻의 變化

資料 가), 나)에서도 平音·硬音·有氣音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濟州 方言에서 接合語를 形成할 때 後行語 첫소리가 有氣音化·硬音化 또는 平音으로 發音되어지는 것은 先行語 末音과 後行語 첫소리 사이에 音素(形態素, 語素도 포함)가 잇소리나 ‘ㅎ’의 介入, 音의 長短이나 休音의 介入이나 作用에 依한 變化로 본다.

그 理由는 先行語 末音이 無聲音(기조기조)이면 後行語 첫소리는 破裂·破擦音일 때는 昂揚 硬音化가 되나, ㅎ이 介入되었을 때는 後行語 첫소리는 平音이나 有氣音으로 나게 된다.

그러나, 先行語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行語 첫소리가 破裂·破擦音일 때는 平音·硬音·有氣音으로 나게 때문에, 先行語 末音이 後行語 첫소리에 비친 어떤 音韻變化의 過程을 音連結過程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며 그 사이에 어떤 音素의 介入이나 語素의 作用으로 보아야 한다.

濟州 方言에서는 위와 같은 條件에서 平音으로 나타나는 것은 音長이나, 連接에 있어서 末音의 介入作用으로 보아야 하며 硬音으로 變하는 것은 文獻語에서 ‘자잇소리’라고 하는 ‘ㄱ, ㅋ, ㆁ, ㆁ, ㆁ’ 등의 介入으로, 有氣音化하는 現象은 ‘ㅎ’의 介入으로 보아야 한다.

音韻變化의 原因에 對해서를 爲는 學者들이 研究와 發表의 功이 없지않다. 이 變化의 複雜 條件에 對해서 充分하게 說明하지는 못한 것으로 본다.

그 充分하게 說明하지 못한을 代弁하는 Bloomfield의 말과 보면

音韻變化의 原因이라고 하지만 言語變化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結果뿐이요, 그 原因과 過程으로부터 그 明確한 說明을 할 수 없으며 現狀態로는 不可能하다.<sup>10)</sup>

그 後자를 現在까지 그 音韻變化의 原因으로, 部分的으로나마 大體로 利用되고 있는 것은 “音韻論에 依한 保守와 永遠한 모순”<sup>11)</sup>으로 풀이되는 것과, “音素의 結合的 條件으로 變化한 것으로는 努力經濟나 말의 生命을 維持하고 表現을 強하게 한다든지 無意識的인 作用”<sup>12)</sup>을 變化의 原因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라고 본다.

10) 金英培(1965): ‘有氣音化에 對하여’, 『東岳語文論集』第三輯, (서울: 東國大學校), p. 31 再引用.

11) A. 마르페레, 袁芳堯譯(1969): 『言語學概論』, (서울: 一潮閣), p. 182.

12) 이 一勇(1979b): 『國語音韻學』, (서울: 정음사), p. 90.

그리고, 觀點을 달리한 見解로는 言語史的인 面에서 본 言語進化요, 音聲學的인 面에서 본 調音生理作用이요, 세째는 意味論에서 본 表現機能<sup>13)</sup>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以上の 理論을 바탕으로 한다면 有氣音化된 ‘카티고츠’는 ‘平音 ‘카티르즈’보다는 強한 氣를 지니게 되며 聽覺印象도 鮮明해진다. 努力經濟나 言語經濟의 側面에서도 모리어 平音보다 努力은 더 들지만 鮮明한 聽覺印象을 지니게 되고, 硬音보다는 音의 長短의 面에서도 發音하는 時間이 짧고 強하게 되므로 ‘ㅎ’이 介入된 것으로 본다.

참고로 平音·硬音·有氣音에 關한 실험의 結果를 보면,<sup>14)</sup>

터 점 소리	(1) ㅁ	(2) ㅍ	(3) ㅍ
기		센기	여던 기
성문—위 긴장	+	—	—
높여진성문—밑 호기압	+	+	—
성문 압축	+	—	—

가 참고가 되겠고,

김 진우님은 터점소리의 막음 동안에 형성되는 구강 안의 공기압을 측정하였는데<sup>15)</sup>

(1) 기압 증강의 시간

ㅁ……91m/sec

ㅍ……111m/sec

ㅍ……115m/sec

(2) 기압 형성의 속도

ㅁ……60°~70°

ㅍ……80°~90°

ㅍ……80°~90°<sup>15)</sup>

와 같아서, ㅁ에 비하여 ㅍ, ㅍ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강에 긴장이 있음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그 조음시간이, 막음의 시간이 빠르고 떠점까지의 동안 즉 지속의 시간이 길다는 것을 말해 준다.

김 인삼님은 오실로그래프에 의한 실험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하고 닿소리의 길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3) 黃香笑(1979) ; 『韓國語音韻論』, (서울 : 三友出版社), p.125.

14) 金貞濬(1981) ; 『우리말 소리의 연구』, (서울 : 과학사), p.197.

15) 金貞濬(1981) ; 『上揭書』, p.198.

흔 닿 소 리			된 닿 소 리		
기호	진동수	계속시간	기호	진동수	계속시간
ㅋ[kh]	2,000	110milli sec	ㅍ[pʰ]	1,900	10milli sec
ㆁ[ɲ]	2,900	85milli sec	ㅌ[tʰ]	1,800	10milli sec
ㅎ[h]	3,500	140milli sec	ㄱ[kʰ]	1,000	15~45milli sec
ㅍ[p]	1,600	40milli sec	ㅈ[tfʰ]	3,700	30~60milli sec
ㅌ[t]	2,100	100milli sec	ㅅ[sʰ]	2,700	90milli sec
ㅍ[ph]	2,500	95milli sec			

된닿소리는 유성자음이나 또는 보통 무성자음(ㄱ, ㅋ, ㆁ)과도 다른 특수한 무성자음인데, 날카롭고 또한 계속 시간이 짧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sup>16)</sup>

그리고 또한 可聽度(audibility)도 긴장음이 이완음보다 가청도가 높다(Jakobson)고 한다. 가청도의 단계는 ㄱ < ㅍ < ㅌ가 예상된다.<sup>17)</sup>

이상의 實驗 結果들은 平音·硬音·氣音의 性質을 把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수 개 : 수께 : 수카이, 돌 자를 : 돌자를 : 돌자칼, 짐배 : 짐뻬 : 짐뻬이, 낭질 : 낭질 : 낭질’ 등의 음을 假想할 수 있을 것이다.

‘수 개’에서는 이완음으로서 ‘수께’나 ‘수카이’의 긴장음보다 先行音이 音長이 되어 짐은 물론, 발음의 時間도 길게 되고, 可聽度も 약하게 된다고 본다.

이상의 三例에서도 長音과 休止, 사잇소리들, 그리고 ‘ㅎ’은 音韻變化 즉 畵成語에서는 ㅎ 音을 連結할 때 介入이 되어 形態素 또는 韻素로서의 機能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 이들은 平音이든 硬音·有氣音이든 語意가 分化되는 일이 없이 一般 言衆에게는 ‘雄兵, 石粉, 질바’ 등으로 傳達되어 간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두개의 어휘에서는 語意分化가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보아지나 몇 안되는 點으로 보아 무시한다.)

그리고 이들 長音이나 休止, ‘ㅎ’이나 ‘ㅅ’ ‘ㅎ’ 등은 文法的 機能으로는 先行語와 後行語 사이에서 意味機能도 하여 複意節을 單意節化한다든지 두 말의 對等並列이나 類屬, 混雜의 關係를 나타내기도 하며 앞말과의 主從의 關係도 나타내는 形態素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의 사잇소리들과 거의 같은 音韻條件에 놓이고, 사잇소리들이 硬音化하는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고, 硬音化시키는 音素 또는 形態素는 있고 有氣音化시키는 音素는 없는 點으로 봐서 ‘ㅎ’을 같은 사잇소리의 系列에 놓고 ‘ㅎ’을 氣音化시키는 音素로 보코자 한다.

16) 김영송(1981); 上揭書, p. 200.

17) 김영송(1981); 上揭書, p. 206.



## 5. ‘사잇소리’의 音價 및 機能

사잇소리 ㅅㄱㄷㅂㅇㅅㅌ들에 關한 研究들<sup>18)</sup>은 그 音價面이나 機能面에서 많은 業績을 남겼다.

그런데, 文獻語에서 사잇소리로 쓰인 글자들은 有聲音 뒤에서 無聲音 「ㄱㄷㅂㅇㅅㅌ」가 쓰였다고 하며 有聲音과 有聲音 사이에서는 ‘△’가 쓰였다고 보고 있다.

使用例에 있어서는 先行語 末音의 性質에 따라 사잇소리들이 달리 쓰였고, 後行語 첫소리는 硬音化되고, 先行語 末音은 閉鎖되었다고 한다.

先行語 末音이 不淸不濁音(ㅇ, ㄱ, ㄷ, ㅂ, ㅇ, ㄴ 등)인 때는 사잇소리로 ㄱㄷㅂㅇㅅㅌ가 쓰였고 後行語 첫소리가 全淸音(ㄱㄷㅂㅅㅌ), 그리고 中聲 및 全濁音(ㅍ, ㅊ, ㅃ, ㅆ, ㅈ)이거나 後行音이 次淸音(ㅋ, ㆁ, ㆏, ㆑)과 全濁音일 때는 閉鎖關係로 사잇소리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잇소리의 變遷은 重刊本 杜詩諺解 以後 ‘ㅅ’ 하나로 統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다.

그러나, 以上の 使用例와는 달리 그 사잇소리의 使用이나 그 機能에 있어서는 音聲·音韻의 으로나, 後行語와 連結되었을 때 그 音價에 關해서는 꽤나 다른 見解들이 發見되어 진다.

그 機能에 關한 見解로는 崔鉉培教授는 그 先行語의 末音이 그 後行語의 첫소리에 變音의 影響을 막기 위하여, 그 앞말의 끝소리의 남은 氣(勢)를 딱 막아 끊음<sup>19)</sup>에 있다고 했고, 허웅 教授는 여린소리를 된소리로 바꾸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심리작용으로 아래

- 18) 李熙昇(1961a); 「한글 맞춤법통일안강의」, (서울: 新丘文化社), pp. 253~273.  
 최현배(1961a); 「한글갈」, (서울: 경음사), p. 381  
 李崇寧(1961); 상계서, (서울: 乙酉文化社), p. 51.  
 李基文(1980a);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p. 51.  
 俞昌均·姜信沆(1963); 「國語學史」, (서울: 民衆書館), p. 86.  
 李男德(1968); <15世紀 國語의 된소리考>,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pp. 405~417.  
 허웅(1961); 「龍飛語天歌」, (서울: 正音社), pp. 36~37.  
 \_\_\_\_\_(1979b); 上揭書, pp. 335~336.  
 \_\_\_\_\_(1979a);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pp. 67~69.  
 朴炳采(1973);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p. 77.  
 \_\_\_\_\_(1974); 「論註 月印千江之曲」(上), (서울: 正音社)p. 78.  
 \_\_\_\_\_(1979); <韓國文字發達史(中)>, 「韓國文化社大系·V」,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移所), pp. 183~184.  
 安秉禧(1979); <韓國語發達史(中)>, 「韓國文化史大系·V」,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p. 235.  
 全在昊(1973); 「杜詩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pp. 197~217.  
 金龍卿(1981); 「國語學論集」, (서울: 螢雪出版社), p. 79.  
 19) 최현배(1961a); 上揭書, p. 384.

형태소의 첫/ㄴ, ㄷ/을 겹으로 내는 일이라 하고는 先行語 末音을 內破化시켰고 後行語 첫 소리를 硬音化시켰다<sup>20)</sup>고 보았다.

그런데 一般的인 見解로는 後行語 첫소리를 硬音化시켰다고 보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으나 後行語 첫소리에 母音이 왔을 때는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sup>21)</sup>는 見解와, 母音과 有聲음이 오더라도 硬音화된<sup>22)</sup>는 見解가 있어 서로 상반되고 있음을 본다.

文獻語에서 例를 들어보면,

- (1) 오놓나리, 後△난, 님改말씀, 바꽃우희, 높브를, 天子△位,
- (2) 冕기쁘디, 冕間ㄷ지뵈, 사궤쁘디리잇가, 狄人스서리에, 寬길히
- (3) 안캬 조르불 암툭

물론의 (2), (3)에서는 硬音化, 有氣音化가 이루어진다는 데 異論이 없지만 (1)에서는 異論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論外로 하고 오직 複合語를 이룰 때는 오늘날보다도 文獻語에서가 더 철저하게 사잇소리가 介入되었었다는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sup>23)</sup> 이에 따라서 筆者는 ‘ㅎ’는 有氣音化시키는 形態素나 音素로 보고, 사잇소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잇소리의 音價는 어떠한가를 살펴 보면

사잇소리로 쓰인 ‘스’이나 ‘ㅎ’은 本來의 音價를 지니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論文에서 밝혀졌다. 後行語의 첫소리와 같이 發音되어 된소리로 만드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그 種論을 一部 소개하면,

李景寧教授는 複合語의 形成에서 “사이스”를 끼우는 데, 그 “스”字는 오직 [ʔ]의 구실에 아무 것도 아니다.

예 : (1) 高벼로기, 아바뵈뵈희, 하늬벼리(出典省略)

(2) 淨飯王스우호로, 淨飯王스아송니몬, 王스 일후문(出典省略)

여기서 (2)의 境遇는 [ʔu] [ʔa] [ʔi]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絶對적으로 “스”가 發音된 것은 아니다.<sup>24)</sup>

20) 이기홍(1979a) ; 上揭書, pp. 67~69.

21) 이기홍(1979b) ; 上揭書, pp. 392~393.

22) 이기홍(1979b) ; 上揭書, pp. 392~393.

23) 李景寧(1968) ; 上揭論文, pp. 405~417.

24) 이기홍(1979a) ; 上揭書, p. 315.

25) 李景寧(1961) ; 上揭書, p. 29, pp. 88~89, pp. 112~113.

26) 이기홍(1979b) ; 上揭書, pp. 392~393.

(1979a) ; 上揭書, pp. 67~69.

허 용 教授는 無聲의 休息(사잇소리)<sup>25)</sup>으로 보고 있음이 차이가 있으나, 사잇소리가 본來的 제 音價를 지니지 못했다는 點은 一致가 되고 있다. 제 音價를 지니지 못했다고 하면 後行語나, 音節의 連接에 있어서 音長이나 休止의 位置에 介入이 되었으며, 音價는 後行語 첫소리 破裂·破擦 平音의 硬音化 要素가 된다고 본다.

體言間에 介入된 ‘ㅎ’도 音價에서는 末音으로 쓰였을 때는 後行語 첫소리를 有氣音化시키는 要素가 되는 點도 一致한다.

사잇소리의 機能에 關係서는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杜詩諺解를 通하여 200語를 뽑아 分類한 것을 보면<sup>26)</sup> 構文論的 意味機能으로,

1. 所屬 및 所有表示의 機能(30語)

- 所屬의 冠形語
- 所有의 冠形語

2. 主体表示의 機能(42語)

4. 때 表示의 機能(26語)

6. 程度表示의 機能( 4語)

8. 同格表示의 機能( 3語)

10. 存在表示의 機能(35語)

3. 全体表示의 機能(38語)

5. 目的 表示의 機能(3語)

7. 用途·資料·原因表示의 機能(4語)

9. 性質·起源表示의 機能(2語)

로 보았으며 音韻論的 機能으로는

- 1. 絶音機能
- 2. 硬音化 作用

등으로 仔細히 分類했고 ‘모든 사이스은, 閉鎖平音(빙는 實際 言衆音이 아니고 體系造成上 임시 造作物인 듯하나 곧 없어졌다)으로 쓰였으니 이 點도 重要하다고 보았으며, ‘사이스’은 모음·ㄹ·ㅎ·ㄴ·ㄹ·ㅁ·ㅂ·ㄱ 等 音의 아래 쓰였고, 200語 中 ㅂ下1, ㄱ下5 合計 6語를 除外하고 모두 有聲音下에서만 쓰였다고 보고 있으며, 사이스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有聲音은 모두 氣息 流出音이므로 그대로 뒤서는 先行 有聲音이 呼氣閉鎖가 不可能하다. 同化 等 여러 가지 音變化가 일어나 兩體言은 對等한 청취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여기에 스으로 閉鎖平音을 使用한 原因이 있는 것이다. 氣息流出의 有聲音을 一吐 猝 막고 休止(pause)를 두는 데는 이 點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先行音이 無聲音일 때는 그 自体가 폐쇄음이므로 스스로 ‘사이스’ 기능을 하니 그의 重要性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26) 全在昊(1973 ) ; 上揭書, pp.197~217.

그리고 사이 ‘스’의 用例는

(가) 体言間：남값말씀.

(나) 体言 助詞間：남값스기.

(다) 助詞 体言間：漆沮マ잇음, 天으룩 우흔

과 같이 쓰였으나 (가)가 絶對多數이며 基本的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柳儀의 《諺文志》에서는 ‘스’의 쓰임을 밝히 所以用於 聯兩語者也, 如通解, 釋筵云비스든, 謂舟之席也, 舟釋비也, 席釋든也, 非잇也, 但以聯意而自生이라고 했다.<sup>27)</sup>

濟州 方言의 複合語들도 能히 그러한 機能을 한다고 보며, 音韻論的 機能은 다르더라도 ‘스’와 더불어 한쪽은 硬音化 作用을 하고, 한쪽은 有氣音化 作用을 한다고 본다.

스과 ㅇ의 일치점을 몇 가지 들어 보면,

用例에 있어서도 ‘ㅎ’이 介入도 体言間이 우세하며, 그외 助詞나 用言間에도 介入이 된다는 점도 일치한다고 본다. 그리고 有聲音 아래서의 介入이 우세하며 無聲音 아래서의 介入도 認定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有聲音 아래서의 介入만을 다루고 있다.

金亨奎教授는 複合語를 이룰 때 所謂「사이스」이라고 해서 스대신 ㅇ이 極히 적은 例이지만 올 수도 있는 일<sup>28)</sup>이라고 했다.

介入의 原因도 같은 音韻系列 摩擦音인 /스, ㅇ/이어서 거의 大同小異하며, 끝소리에서 音價의 變動도 一致하는 點으로 본다. ‘스’와 ‘ㅎ’이 다른 點은 ‘스’은 氣息流出的 有聲音을 一止 막고 休止(pause)를 두는데 반해, ‘ㅎ’의 介入되었을 때는 氣息流出的 有聲音을 막는다는 一致하나, 休止의 時間은 짧다고 본다.

그리고 先行語 末音이 無聲音일 때는 ‘ㅎ’도 介入의 必要性을 크게 느끼지 않는 點 등으로 보아 ‘스’와 ‘ㅎ’은 거의 같은 條件에 놓인다고 보아지며, 音素로서의 機能이나 文法的 機能등으로 統合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ㅎ’이 介入도 사잇소리와 같이 音의 連接에 있어서 先行語와 後續語의 關係를 나타내기도 하고 先行語 末音을 폐쇄시켜 後行語 첫소리의 有聲音化를 막고, 도리어 音의 變化에 依하여 流動的인 形態의 發音을 強化시켰다고 본다. 또한 ‘사잇스’이나 ‘ㅎ’이 후속어에 연결되는 點도 一致한다고 본다.

그러면, 사잇소리들 중에서도 같은 體系에 들고, 같은 機能을 했던 ‘ㅎ’에 關하여 考察 結果 ‘ㅎ’의 介入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 機能이나 使用例들을 李 崇寧教授의 理論을 利用하여 보면,

27) 趙健相(1981); 「해설역주·諺文志」, (서울: 董雪出版社) pp. 308~309.

28) 金亨奎(1979); 「增補國語史研究」, (서울: 一潮閣), p. 173.

“ㅇ”는 [ʔ]의 구실을 가질 뿐이다. 國語에서는,

- (1) 語頭에서나 또 音節 첫소리에 쓰인 일이 없다.
- (2) 母音間에서도 쓰인 일은 없다.
- (3) “사이스”와 같이 쓰인 일은 있다.

例：快ㅇ字, 卵ㅇ字, 論ㅇ字, 虛ㅇ字, 先考ㅇ쁜 하늬뜨더시니

- (4) 活用에서 冠形詞形의 “령”로 쓰인다.

값길히, 니르고져 흥 배, 後宮에 드르삼 제, 마름디니라.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交替公式이 나온다.

一ㅇ+	}	ㄱ	}	ㄱ	例	값길	}	갈꺨
		ㄷ		ㄷ		흥들		흥꺨
		ㅂ		ㅂ		흥바		흥꺨
		ㅅ		ㅅ		값딤		갈꺨
		ㅈ		ㅈ		값제		갈꺨

여기서 ‘ㅇ’은 硬音의 구실, 즉 [ʔ]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ㅇ”字는 音韻單位가 될 수 없다<sup>29)</sup>고 하고는 母音 앞에서의 [u] [a] [o] 등도 變音<sup>30)</sup> 한다고 보았다.

‘ㅇ’에 關한 研究들<sup>31)</sup>에서는 앞의 理論에 더 보탠다면 語意를 分化하는 일은 없다<sup>32)</sup>는 見解나, 一般子音과는 달라 이 喉頭音으로서 母音에 가까운 特殊子音의 性質上 實際 國語音이었기는 하나, 言衆이 音韻으로 認識하기에는 너무 微弱한 音으로 發音에 있어서 「ㅇ」○, ㅇ, ㅇ」로의 自生的 變化 과정에 있었던 音으로 생각된다<sup>33)</sup>는 見解는 柳備의 <諺文志>에서의 ‘ㅇ’에 關한 說明과 一致하고 있으며, 上下 兩音(先行語末音과 後行語 첫소리)를 調和하기 위한 音이며 硬音부호가 아니라 所有格的 或은 連音的인 機能을 한 것<sup>34)</sup>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29) 李崇寧(1961); 上揭書, p. 39.  
 李男德(1968); 上揭論文, p. 410.  
 30) 李崇寧(1961); 上揭書, p. 29.  
 31) 李崇寧(1961); 上揭書, p. 39.  
 李基文(1980a); 上揭書, p. 73.  
 李男德(1968); 上揭論文, p. 410.  
 朴炳采(1979); 上揭論文, pp. 183~184.  
 金龍卿(1981); 上揭書, pp. 131~139.  
 32) 許 勳(1979b); 上揭書, p. 160.  
 33) 朴炳采(1979); 上揭論文, pp. 183~184.  
 王容駿(1957); 上揭論文, p. 93.  
 34) 金龍卿(1981); 上揭書, pp. 139~141.

以上の理論들에서 보면 ‘ㅎ’은 자잇소리로서 充分한 機能을 했다고 보며 朴炳采教授는 자잇소리의 機能論 形態論的인 面에서는 두 語辭의 統合作用과 屬格的 機能으로, 意義論的인 面에서는 두 語辭의 從屬的 關係를 表示하는 것이 特徵<sup>35)</sup>에 있다는 見解를 습치면 ‘ㅎ’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 (1) ‘ㅎ’은 뒤에 오는 첫소리를 되게하는 硬音符號<sup>36)</sup>이다.
- (2) 사이스와 같은 機能도 있다.
- (3) ‘ㅎ’은 ㅎ, ㅎ ㅎ으로 變했다고 볼 수도 있다.
- (4) 두 語辭의 統合作用에 따른 文法的 機能도 한다.

이런 點으로 보더라도 ‘ㅎ’과 ‘ㅎ’은 같은 系列에 屬했던 것이며, ㅎ은 일차 消滅해버림으로써 變化해서 ‘ㅎ’이나, 또는 音價가 없다고 보아 ‘ㅇ’로 變했다고 보는 見解도 可能하다고 본다. 그러나, ‘ㅎ’과 다른 點은, ‘ㅎ’은 後行語를 硬音化 했다는 것이며, ‘ㅎ’은 有氣音化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ㅎ’도 介入되었다고 보아지며 ‘ㅎ’도 介入이 되었고, ㅎ) ㅎ은 強化라고 볼도 妥當하다고 본다. 그리고 ‘ㅎ’과 ‘ㅎ’은 變異音이라는 點도 強化라는 點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리고 李基文教授는 以上の 見解들과는 달리,

‘ㅎ’은 訓民正音體系에서 喉音이 次淸字로서 ‘호(呼)트’와 同列에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訓民正音解例에 이미 ‘ㅎ’이 다른 次淸字와는 다른 點이 지적되어 있다.

우, 制字解에 “全淸並書則爲全濁以其全淸之聲擬則爲全濁也 唯喉音次淸爲全濁者 盖以ㅎ聲深不爲之擬 ㅎ比ㅎ聲淺故擬而爲全濁也”라 하였음을 본다. ‘ㅎ’이 聲淺이라 한 것은 그것이 喉頭音이 아님을 看破한 것이다. 최근의 音聲學研究들에 依하면 ‘h’는 喉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母音과 같은 位置에서 나는 것이다.(Kim70) 요컨대 위의 引用을 ‘ㅎ’이 有氣音(次淸)系列에 屬하는 것이 아니라 平音(全淸)系列에 속하는 것임을 暗示하고 있다<sup>37)</sup>

는 見解를 따른다면 ㅎ) ㅎ, ㅎ) ㅎ은 變異音으로서 可能하고 ‘ㅎ’과 ‘ㅎ’은 거의 같은 性質을 지녔다고 보며, 全淸音으로서 쓰인 자잇소리들과 한결 더 接近이 可能하리라 본다.

그리고, 자잇소리의 機能은 複合語를 이룰 때 一般的으로 硬音化시키는 形態素로만 쓰여 있으므로, 後行語를 氣音化시키는 形態素는 없었다는 것이 ‘ㅎ’을 有氣音化시키는

35) 朴炳采(1973); 上揭書, p.73.

\_\_\_\_\_ (1974); 上揭書, p.78.

\_\_\_\_\_ (1977); 「古代國語의 研究」, (서울: 高天出版部), p.16.

36) 李基文(1980a); 上揭書, pp.28~29.

Kim Chin-wu(1970)의 理論은 再引用.

形態素로 보는 要因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音聲學的으로도 連接에 있어서 有氣音이 硬音보다는 可聽度나, 音의 長短면에서도 心理的인 要求를 充足시켜 준다고 보아진다.

앞에서 ‘ㅎ’도 語頭에서 홀로 쓰인 적이 없고 漢字語의 사잇소리로는 홀로 쓰인적이 있으며 冠形詞形語尾 ‘-히’와 더불어 썼다고 하는 것은, 獨立된 하나의 音素로 보기에 는 微弱한 점이 있으며 ‘ㅎ’도 語頭에나 頭音으로 쓰였을 때는 h로서 /h/를 낼 수 있으나 사잇소리로 쓰였을 때는 일정한 形態가 없이 /s/ /h/로 변하고 만다. 그리고 文獻語에서는 끝소리에는 쓰인 事實이 없다는 점도 一致한다. 그러나, ‘ㅎ’이 音素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그리고 이 둘은 그렇다고 하여 最小對立語(minimal pair)가 成立되지 않는 것은 資料가, 나에서 平音이나 硬音, 氣音으로 發音되더라도 語意分化에는 別影響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強化만 되었다고 보아지므로 ‘ㅎ’과 ‘ㅎ’은 變異音으로 보려는 것이다.

## 6. ‘ㅎ’의 音價 및 機能

‘ㅎ’은 訓民正音體系에서는 喉音이며 次淸으로 規定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보면, 聲門音이며 特히 破裂 破擦音과 混合할 때 顯著하게 나타나는데 末音의 摩擦音은 閉鎖音으로 變한다. 그리고 同類音인 ‘ㅅ’의 發音位置에서 閉鎖하게 된다. 이리 하여 末音이 ‘ㅎ’은 ‘ㅅ’으로 變한 것이 있다. (發音에 있어서 習慣으로 因하여 ‘ㅅ’받침은 ‘ㅅ’과 同一함)<sup>37)</sup>는 見解가 있고 ‘ㅎ’받침소리가 다른 닿소리하고 이를 積에 ‘ㅅ’(더 정격히 말하자면 ‘ㅆ’)으로 내는 일이 있으며 ‘ㅎ’이 ‘ㅅ’을 만나면 으레 ‘ㅅ’으로 나나나 ‘ㅎ’소리가 ‘ㅆ’으로 남과 같다<sup>38)</sup>는 見解나, /ㅎ/은 無聲音으로서 그 혀나 嘴唇의 狀態는 彼續하는 聲音과 同一하고, /ㅎ/이 /ㅅ/으로 變하는 일이 있듯<sup>39)</sup>이나, [k, t, p, c]가 [h]와 同音리던 [k', t', p', c']로 바뀌는 따위나든지, 강한 소리와 약한 소리 두 개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라몽의 이른바 ‘強者의 法則’이라는 音韻法則은 調音自然性에 그 原因이 있다<sup>40)</sup>나, 東國正韻 한자음 表記에서 牙音系의 ‘ㄱ’은 ‘ㅎ’으로 ‘ㅎ’은 ‘ㄱ’으로 서로 섞 바뀌어 使用된 關係로 喉音은 牙音을 겸하였고, 牙音은 喉音을 겸하여 表記되었던 것이다<sup>41)</sup>나, 國語와 Altai 諸語와 比較·對照해 볼 때, 韓國語의 [h]語頭音이 다른 言語에서

37) 李敏洙(1965) ; 『冠助詞研究』, 『국어국문학 1』, (부산 : 국어국문학회), p.13.

38) 朴炳燾(1961b) ; 『우리말본』, (서울 : 정음사), p.133.

39) 朴炳燾(1979a) ; 『上揭書』, p.30J.

40) 朴炳燾(1979b) ; 『上揭書』, p.338.

41) 黃希榮(1979) ; 『上揭書』, p.127.

42) 朴炳燾(1981) ; 『中世國語의 喉音研究』, 『韓國文學研究(第三輯)』, p.255.

는 (Tungus-Manchu 語가 가장 顯著하지만) [s]音으로 되어 [있음]을 본다. 이것은 s)h의 音變에 依해서 이루어진 對應現象이라 본다<sup>42)</sup>는 見解나 “ㅎ”소리는 다른 자음과 합할 때에 그 소리 속에 섞이어 버리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sup>43)</sup>는 등의 見解들로 보아서 調音點에 關해서는 김진우教授와 許雄教授의 見解가 거의 一致하며, /h/의 音價에 關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h)나 또는 /s/로 變音됨은 거의 認定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스’이 사잇소리로 使用되는 점이나 ‘ㅎ’을 介入으로 보고 사잇소리의 機能을 한다고 보는 見解의 傍證은 된다고 본다.

그리고 ‘ㅎ’은 ‘히스기’와 連接되면 ‘포트스기’으로 ‘스’과는 ‘쓰’이 되고 ‘니’앞에서는 ‘디’, 休止 앞에서는 脫落하였다.<sup>44)</sup>고 했고 ‘th t)h kh’는 有聲音 사이에서 介在될 때에는 앞의 有聲音을 빨리 끊게 하고, 이 音素 自体는 그 代身 若干 길어진다고<sup>45)</sup>는 見解들을 보면, ‘ㅎ’은 音의 連結에 따라서 有氣音化하든지 또는 硬音化하든지 脫落하거나 境圍에 따라서 默音이 되는 수도 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도 ‘ㅎ’는 音連結에 있어서 多樣함을 알 수 있으며 이 變化의 多樣함이 音連結에 더 적합한 機能을 發揮하고 있다. 그래서 複合語를 形成할 때 ‘ㅎ’의 介入은 有氣音化하는 作用을 했다고 본다.

## 7. 音의 長短과 休止의 機能

音節과 音節, 單語와 單語의 連接에 있어서 音의 長短이나 休止는 音韻의 變化에 크게 作用한다고 본다.

어떤 言語에서는 이것들이 辨別的 資質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國語에서는 辨別的 資質이 되어진다는 見解와 그렇지 못하고 剩餘的 資質이 되어진다는 見解가 있다.

前者를 주장하는 見解<sup>46)</sup>로는 國語辭典의 編纂者는 勿論이고 四聲 中 上聲은 長音化했다든지 長音 ‘니’가 長音으로서 顯著이 나타난다.<sup>47)</sup>는 주장이고 後者는 剩餘的 資質은 되나 國語辭典에서 長短音의 表示는 도리어 混亂만을 가져올 뿐<sup>48)</sup>이라는 見解가 있다. 그리고 ‘고유어’에는 역사적으로 聲調의 차이로 辨別的이던 서로 다른 언어가 현대에 와서 부득이 同音어라는 관계에 떨어진 것들이 있다. 또 어떤 단어는 그 語末子音의 中화로 말미암아

42) 金子重(1979) : 『서語史研究』, (서울: 一潮閣), p. 277.

43) 李炳圭(1961a) : 『上揚書』, p. 163.

44) 李炳圭(1961b) : 『國語史概說』, (서울: 塔出版社), p. 135.

45) 李炳圭(1979b) : 『上揚書』, pp. 176~181.

46) 南賢植(1982) : 『國語學論文集』, (서울: 一潮閣), pp. 266~269.

鄭炳圭(1981a) : 『韓國語音韻論』, (서울: 開文社), pp. 120~121.

47) 南賢植(1982) : 『上揚書』, pp. 266~269.

48) 金子重(1962) : 『서語學概論』, (서울: 一潮閣), pp. 43~45.

鄭炳圭(1979) : 『上揚書』, p. 270.



독립적으로 쓰일 때와 후행음이 자음으로 시작될 때에는 중화적 효력이 그대로 지속하여 辨別할 수 없는 동음어가 된다. 전자의 예로,

밤(粟)/밤(夜) ; 날(刃)/날(日) ; 눈(眼)/눈(辱) ; 솔(松)/솔(刷子), ; 줄(線)/줄(鐘)  
등이 있고

後者の 예로,

있다(有)/있다(續)/있다(忘) ; 낫(鎌)/낫(葛)/낫(面)/낫(單)/낫(殺) 등<sup>49)</sup>이 있다.

筆者는 古語에서는 聲調에 依해 辨別的 資質을 지녔었다라도 그렇다고 하여 모든 語彙가 聲調로써 語意가 識別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理由는 聲調 自体가 眞正한 우리말의 것이 아니라<sup>50)</sup>는 見解도 妥當하게 보아지기 때문이며, 또한 音의 連結에서도 聲調가 變하는 일이 있고, 또한 上聲은 後에 長音으로 變했다고 하나 上聲과 去聲은 同一하다는 點에서 長短音을 識別하는 데 混亂만을 일으킬 것이므로 剩餘的 資質로 보려고 한다.

그리고, 休止에 있어서도 辨別的 資質을 認定하는 見解가 있다. 文獻語에서 ‘아이’ 이후의 性格’와 ‘아이’ 「副詞로서 ‘미리; 애벌’의 뜻에서 minimal pair가 確認된다.<sup>51)</sup>는 點으로 보아지도 音의 連結에서 長·短이나 休止는 重示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長·短音은 位置의 變動이나 感情表現에 따라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sup>52)</sup>는 것과 ‘밭(田)’과 ‘밤(夜)’, ‘갯(海松)’과 ‘밤(粟)’은 ‘밭·갯’은 ‘밤(夜)·밤(粟)’에 비해 짧고, ‘밭(夜)·밤(粟)’은 ‘밭·갯’에 비해 길다는 見解는 모음 뒤에 오는 받침이 無聲音이나 有聲音이나에 따라 無意識적으로 달라진 것<sup>53)</sup>이라는 見解는 타당하다고 본다.

母音은 子音보다 길고, 받침이 있는 母音보다는 받침이 없는 모음이 길고, 또, 無聲의 子音 받침보다는 有聲의 子音받침이 있는 것이 길다는 見解도 수증된다.

그러면, 剩餘的 資質로서의 音의 長短이나 休止는 어떤 機能을 하는가를 밝혀 보면, 音의 連結時 音의 長·短, 休止의 有無에 따라서 先行音과 後行音 사이에 發音에 있어서 큰 差異를 나타낸다고 본다. 先行語 末音에 音長이나 休止가 있다면 後行語 첫소리는 그대로 原音을 내키는 그렇게 침울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先行語 末音을 音長이나 休止가 없이 後行音과 連接된 때는 後行語 첫소리는 先行語 末音의 影響을 받게 되어 變音의 狀態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語意의 不明確性이라든지 可聽度의 混亂을 예상하게 되어 그 사이에 사잇소리로서 어떤 音의 介入이 필요하게 된다.

49) 沈百箕(1981); 『國語學論』, (서울: 集文堂), p.117.

50) 鄭榮吉(1981b); 『國語學의 關連研究』, (서울: 一潮閣); pp.10~21.

51) 朴容天(1977); 『揚聲』, pp.20~23.

52) 鄭克東(1981); 『國語音韻体系의 研究』, (서울: 一潮閣), p.123.

53) 김재호·박이권(1979); 『국어학원론』, (서울: 이우출판사) pp.10~12.

54) 최기열(1979b); 『揚聲』, pp.109~110.

김기열(1976); 『一般音聲學』, (서울: 敎文社), pp.219~220.

그러면 連接에 關한 몇 개의 理論을 들어 보면

junction phoneme은 長短의 差異에서 온다. 開放連接과 閉鎖連接의 音素的 差異는 連接前 末音이 長短의 差異일 뿐 無聲의 동안이 아니기 때문이다.<sup>55)</sup>

分節 音素의 連鎖에 있어서의 移行의 方式을 말한다. ‘나가는데’/naknænte/처럼 音의 連鎖에 있어서 中間에 休止를 두지 않는 것은 緊密連接(close juncture)이라 하고, ‘나 가는데’/na+kanænte/, ‘나 가 는 데’/na+kanæn+te/ ‘나가는 데’/nakanæn+te/와 같이 中間에 숨이 끊기는 것을 開放連接(open juncture)이라 한다. 이와 같이 숨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바꿔 말하면 숨을 끊는 앞의 音素가 길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示差的 特徵에 의하여 意味의 分化를 가져 오므로 이 開放連接의 /+/만을 音素로 다루게 된다.<sup>56)</sup>

우리말의 경우 개방 연결은 어절과 어절 사이에 있고, 한 어절은 긴밀연접(close juncture)으로 연결된 음소의 결합이라 하고, 그리고 개방 연결에는 휴지가 있고, 이 휴지는 그 앞소리를若干 길게 끌게 됨을 의미한다.<sup>57)</sup>

/-/에 先行하는 소리의 音長은 휴지의 한 자질로 보고, 문법적 자질과 음성적 자질을 아울러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익기」의 K는 /+/라기 보다 [+FB](formative boundary)로 파악하는 일 (/+kk/)이 앞서야 하고 이 때 뒷 /k/가 [k']로 실현되는 것은 /+/의 자질로서가 아니라 다음 악도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니 여기에 ‘q’를 설정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sup>58)</sup>

주스는 /+/는 스펙트로그램이 억양(intonatin)이나 강세보다 더 뚜렷하며 그 시간적 길이가 1/10초라고 한다. 이 시간은 인간의 청각 한도 5/100초에는 미치지 못하나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그는 /+/연접은 음성이 아니고 음성의 계기적 흐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여 이것을 길의와 음단으로 보았다.<sup>59)</sup>

		동시연속체→					— 60)
		P	T	C	S	K	
중	-	P	T	C	S	K	#
간	H	ph	th	ch		kh	h
연	Q	pq	tq	cq	sq	kq	
속	N	m	n				
지	L		l				

55) 李鍾基(1981) ; 上掲論文, p. 90.

56) 李鍾基(1977) ; 上掲書, p. 151.

57) 李鍾基(1979b) ; 上掲書, pp. 108~109.

58) 李鍾基(1981) ; 上掲書, pp. 238~250.

李鍾基(1978) ; 韓國語學研究, 1(2) (총 14권 1), p. 88.

59) 李鍾基(1981) ; 上掲書, pp. 238~240.

60) 李鍾基(1981) ; 上掲書, p. 238.

배열 → 기술 ↓	중간당소리	중간 당소리 때		유 기 음	
		같은소리끼리	다른소리끼리	같은소리끼리	다른소리끼리
보 기 말 [음 성]	이 끼 [ik'i]	익 기 [ik'k'i]	입 기 [ip'k'i]	조 카 [cok'a]	족 하 [cok'k'a]
1. /+/ 개방연접	/ik'i/	/ik+ki/	/ip+ki/	/cok'a/	/cok+ha/
2. (—) 음절경계	/i-k'i/	/ik-ki/	/ip-ki/	/co-k'a/	/cok-ha/
3. /q/ 후두긴장(마틴)	/ikqi/	/ikqi/	/ipki/	/cok'a/	/cokha/
4. /Q/ 모라(햇도리)	/'ik'i/	/'iQki/	/'ipki/	—	—
5. /Q' 길이(블록)	/ik'ii/	/ikki/i	/ip'ki/	—	—
6.  q  자질(시안)	/ik'i/	/ik'ki/	/ip'ki/	/cok'a/	/cok'ha/

이 |q|는 마틴의 /q/나, 햇도리의 Q와는 성질이 다르다. |q|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가진다.

- (1) 「소리」가 아니다.
- (2) 중간 당소리의 경계다.
- (3) 선행 당소리를 저지(check)한다.
- (4) 후속 당소리를 경화(fortition)한다.

(1)은 마틴 등의 Q가 가지는 공통적인 자질이며, (2)는 개방연접의 자질이며 (3)은 야콥슨의 DF[checked]와 같은 자질이며 (4)는 우리말 음소의 경음화를 반영한 것이다.<sup>62)</sup>

등에서 보면 음素的 연결일 때는 /+/가, 語節이 연결일 때는 /#/(word boundary)가, 音節의 境界일 때는 (—)로 表示되고 있다.

두 낱말이 連結된 때도 音素로 보느냐, 또는 形態素로 보느냐에 따라 連接의 狀態가 달라지고 그 狀態가 다름으로 해서 發音이나 音의 길이가 달라짐을 앞의 그림표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 語節과 語節에 있어서도 子音과 子音의 連接에서 硬音이나 有氣音으로 作用하는 어떤 要素가 必要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連接이 消滅하고 複意節이 單意節化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核意에 變異가 일어나, 文法的으로 並立의 關係나 有屬의 關係, 또는 混合의 關係를 나타내는 形態가 된다.<sup>63)</sup> 이럴 때에 사이소리나 ‘ㅎ’介入의

61) 김영주(1981); 上掲書, p. 263.

62) 김영주(1981); 上掲書, p. 271.

63) 千時權·金宗澤(1977); 「國語意味論」, (서울: 釜山出版社), p. 336.

機能을 하게 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닭의 장; 닭의 알; 소의 고기’가 ‘닭장; 달걀; 쇠고기’ 등으로 複意節이 單意節化하게 되고, ‘마소·산야·남녀 ; 밥그릇·물주전자·뒷집·물것·밤낮’ 등으로 連結된다고 본다.

/k/과 /h/의 相關的 對立에서 /h/를 有徵表系列에 속하는 것으로 잡는 반면, 이 juncture phoneme을 無徵表系列에 들게 함으로써 aspiration에 依한 相關的 對立을 擴張하며, 동시에 /h/가 存在할 수 있는 위치에는 이 juncture phoneme이 다 올 수 있게 하여 音韻으로서의 distribution이 /h/와 對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67)</sup>라는 것은 語頭에서도 連接을 認定하자는 것이지만 우리 말에서도 連接에 의한 休止의 機能이나 介入도 能히 音韻적으로나 文法的인 제 기능을 한다고 본다.

濟州 方言에서는 複合語를 形成할 때 ‘ㅎ’의 介入은 硬音化가 그러하듯이 먼저 音의 長短이나 休止의 作用에 基因한 것으로 본다. 앞서 例示한 資料 가), 나)에서 본다면 音의 長短이나 休止를 介入시켰을 때 原音에 가깝게 發音될 수 있는 것들이 相當數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그러나 短音이나 閉鎖連接으로 發音이 된다면 連接에 있어서 音韻이 變할 可能性을 지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先行語 有聲音은 제 音價를 保存하려 하게 되고, 後行語 첫 소리는 有聲音化되어 弱化함을 防止하려 하게 된다. 그리고 意味面에서도 不分明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ㅎ’音의 介入으로 先行語나 後行語나 語意의 要求를 充足시키게 된다고 보며 도리어 強化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言語經濟面에서나 可聽度, 時間 等에서도 充足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ㅈ音·硬音·有氣音이 되더라도 語意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特徵은 濟州 方言에서는 音의 長短이 辨別的 機能을 하지 못하고, 사잇소리로서 ‘시’의 使用보다도 ‘ㅎ’을 더 많이 사용했으므로 硬音化보다도 有氣音化된 것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文法意識에 關係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 방언에서도 음장(音長)이나 強勢(stress) 현상이 원어민(native speaker)들의 발화(utterance)에서 전혀 실현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없다 : 없다 [əpta] ~ [o:pta]

세다(強) : 세다 [sseda ~ sse:da]

대리(代代) : 대리 [te:de ~ tede]

대단(大端) : [te:dan] ~ [tedan]

늘(恒常) : 늘 [næ:l] ~ [næl] etc

67) 國光(1981) : 上場書, p. 31.

들과 같이 장음(長音)으로 發音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장(音長)이나 강세(stress)가 운소(prosodeme)로서의 시차적 기능을 가져 어휘적 대립을 시키지는 못한다. 이 지역 方言의 言衆들은 /밤:/ (粟)과 /밤/ (夜), /눈:/ (雪)과 /눈/ (眼), /발:/ (簾)과 /발/ (足)들 말에 있어서 音의 長短으로 인한 語意區分을 식별하지 못한다. 이 言衆들의 음운의식(音韻意識)이나 혹은 그 발음 현상들을 볼 때 제주도 방언에는 운소(prosodeme)란 음운체계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65)</sup>

그리고 玄平孝教授의 「濟州島 方言研究」(資料篇)上에서도 長音表示가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부사나 형용사들인데 불과 20여 어휘에 지나지 않음을 보아 言衆들이 音의 長短으로 인한 辨別을 하지 못함도 立證하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濟州 方言에서는 複合語를 形成할 때 有氣音化 現象이 두드러지고 中部 方言, 西部 方言에서는, 音長이 音韻論的 價値를 지님<sup>66)</sup>으로 해서 有氣音化한 語例가 많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8. 濟州 方言에서의 ‘ㅎ’ 介入

앞에서 引用한 資料 가), 나)는 全部가 体言이 複合된 형태이다. ‘ㅎ’에 關한 研究는 玄容駿教授<sup>67)</sup>의 發表가 있는데, 結論을 要約하면,

- ① ‘수ㅎ개, 암ㅎ닭’ 등에서는 ‘ㅎ’가 插腰音이다.
- ② 先行語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續語 初音이 ㅎ을 同時에 發音할 수 있는 破裂·破擦音인 ㅂㄷㄱ스인 경우에 일어난다.
- ③ 先行語末音인 有聲音을 폐쇄, 뒤엎 소리를 똑똑히 들어내기 위하여 ‘ㅎ’이 插腰되었다.
- ④ 濃音化 現象과 같은 言語心理作用이다.
- ⑤ ‘ㅎ’과 ‘ㅎ’이 매우 가깝기 때문, ‘ㅎ’이 ‘ㅎ’으로 有氣音化했다.
- ⑥ 言衆의 言語心理에서 일어난 現象이므로 有氣音化, 濃音化, 平音등 混相이 일어난다.
- ⑦ ‘ㅎ’의 表記가 「ㄷㅎ」으로 분다.
- ⑧ ‘ㅎ’助詞나 ‘ㅎ’体言末音과 關係가 깊다.
- ⑨ ‘ㅎ’助詞나 ‘ㅎ’体言末音 以外の 名詞에도 ‘ㅎ’音이 插腰되어 있다.
- ⑩ ‘ㅎ’助詞와 같은 條件이다.

65) 玄平孝(1971); 《濟州島方言의 音韻》, 「교육제주」17호, (제주: 제주도교육위원회), pp. 97~106.

66) 玄公仁(1977); 上掲書, p. 150.

67) 玄容駿(1957); 上掲論文, pp. 85~103.

⑪ 같은 條件에서 ‘ㅎ’, ‘ㅎ’이 插腰되고, 所有格的 冠形詞形的 機能을 가졌고 또 한 不規則한 用例가 ‘ㅎ’이 介入되었을 때와 一致한다.

⑫ ‘ㅎ’과 助詞 等과 鄰接問題이고 밀접하다.

以上으로 보아 幅넓고 緻密하게 多角度에서 考察되었음을 볼 수 있다.

筆者의 나름대로 앞의 要約을 通하여 意見을 덧붙여 본다면 ‘ㅎ’이 插要音이라 보는 見解는 妥當한 것으로 보이며, ‘ㅎ’과 ‘ㅎ’의 變異音의인 機能으로 본 觀點이나 ‘ㅎ’末音 体言 等과의 關係는 모두 一理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ㅎ’은 ‘ㅎ’의 變異音이나 強化라는 點도 一理는 있으나 硬音化나 有氣音化가 性質上 다르므로 ‘ㅎ’은 硬音化의 形態素나 韻素, ㅎ은 有氣音化의 形態素로 보고자 한다. 그 理由는 ‘ㅎ’이 ㅎㅇ, ㅎㅎ으로도 可能하다고 보겠지만 ‘ㅎ’의 使用된 用例로서 硬音化된 것들도 보이고 平音으로 된 것도 보이지만, 中部 方言에서 硬音化된 것도 濟州 方言에서는 有氣音化한 것이 相當數 있는 點으로 보아 ‘ㅎ’은 ‘ㅎ’의 強化로 有氣音化된 것이 아니라 ‘ㅎ’과 ‘ㅎ’은 類似音이면서 共存해서 온 사실로 보아 ‘ㅎ’은 硬音化의 形態素로, ‘ㅎ’은 有氣音化시키는 音素나 形態素로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完全하게 끝소리로는 ‘ㅎ’도 쓴 일이 없고, 또 ‘ㅎ’도 그런 點으로 보아서, ‘ㅎ’을 有氣音化시키는 音素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나, ‘ㅎ’은 体言의 末에 介入되어 쓰였고 助詞와 連結이 되어 子音 助詞가 有氣音化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도 強化임이 分明하다.

그리고, 中部 方言에서는 語頭에서 硬音化한 것도, 濟州 方言에서는 有氣音化한 것들도 많이 발견된다. 이것도 硬音과 有氣音이 變異音일 수 있다는 傍證은 된다고 본다.

古語에 나오는 ‘ㅼ’은 ‘ㅼ’로 變하는 한편 濟州島에서는 ‘ㅼ’로 變했다.

古語	標準語	濟州語	古語	標準語	濟州語
ㅼ라	까다(鹹)	차다	ㅼ락	작(雙)	작
ㅼ리다	블죄다.	블체우다			

‘ㅼ’도 大概 ‘ㅼ’로 變하는 한편 濟州島에서는 ‘ㅼ’로 또는 ‘ㅼ’로 變했다.

ㅼ어	때(垢)	테	ㅼ둠	떨어짐	터러짐
ㅼ디다	떨어지다.	터러지다.	ㅼ다	떨다	털다
ㅼ	때(筏)	테	ㅼ	때(茶)	테역, 퇴역
ㅼ다	뛰다(超)	티다	ㅼ노다	뛰놀다	뛰놀다
ㅼ다	뜨다(浮)	트다.	ㅼ다	뜰다	뜰다
ㅼ우다	티우다(浮)	티우다	ㅼ다	찌다(蒸)	치다 <sup>65)</sup>

十五世紀의 ㅼ, 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5) 石鎭明(1968) 『濟州島隨筆』, (서울: 寶善齋), p. 36.

말기(筈)→말 매(垢)→테, 뜨다(浮)→트다 짜다(織)→츠다<sup>69)</sup> 등이다.

앞節에서도 잠깐言及했지만 硬音化보다는 有氣音化가 훨씬 짧게, 分明하게 表現되고 言語 經濟面에서도 生産的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硬音化는 微微한 發達<sup>70)</sup>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音의 長短은 濟州 方言에서는 辨別的 機能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休止의 자리 에 ‘ㅎ’이 介入으로 有氣音化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崔鉉培, 許雄教授의 ‘ㅎ’과 ‘ㅅ’과의 移聲에서의 音價의 一致를 든다면 ‘ㅎ’과 ‘ㅎ’ ‘ㅅ’과 거의 같은 機能을 했다는 點은 認定이 可能하다고 보아진다.

李熙昇教授의 類音 接尾辭 —트리다와 —뜨리다<sup>71)</sup>나,

慶尙道 方言에서

암 말(雌鷄)[amʔtal], 암매(雌夫)[amʔkɛ]...

숫 말(雄鷄)[suʔtal], 숫매(雄夫)[sutʔkɛ]...

살고기(精肉)[salʔkogi]...<sup>72)</sup>

이나 덜불(蔑):덜불<sup>73)</sup> 등에서는 ‘ㅎ’과 ‘ㅎ’이 다른 方言에서는 같은 기능으로 介入된 例 들을 發見할 수가 있다. 語意面에서는 辨別的인 機能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言衆은 發話나 聽取時 ‘두’音素가 實現되는 變異가 慣習化된 範圍를 넘지 않는 限, 同時代의 다른 사람이 兩者를 區別해서 發音해도 아무런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다<sup>74)</sup>는 見解 에 一致한다고 본다.

그리고 ‘ㅎ’은 앞말의 有聲音을 일단 閉鎖한다든지, 無聲의 休息이 되게 하겠지만 ‘ㅎ’音은 앞말의 有聲音을 일단 閉鎖하는 機能(탕고→닫고)도 있다고 보아지지만 ‘수개’에 서 ‘수개’를 보면 앞말의 有聲音은 그대로 지켜지면서 圓滑하게 뒷말의 첫소리를 有氣音 化시키면서 先行語 ‘수’를 짧게 하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숫개]나, [수개] 모두 發音이 可能하지만, [수개]로 發音됨이 理論上 타당하다고 보며 두 개의 獨立된 語意節이 結束接合이 되어 單意節化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音韻環境이 다른 때, 즉 名詞와 名詞의 連結이 아니고, ‘히웅이→히으시’ 등에서

69) 李崇寧(1979);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 V」,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pp. 405~407.

\_\_\_\_\_(1977); 上揭論文, pp. 142~143.

\_\_\_\_\_(1961); 上揭書, p. 27.

金英培(1965); 上揭論文, p. 51.

70) 張泰煥(1980); 《韓國語社會學》, (서울: 奎章出版社), pp. 76~77.

71) 李熙昇(1961b); 《韓國語學概說》, (서울: 民衆書館), p. 295.

72) 金英培(1982); 上揭書, p. 215.

73) 林敬淳(1977); 《南青島方言放》, 《湖南文化 9》, (전남: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74) 崔正희·金芳美(1965); 上揭書, p. 150.

도 끝소리 ㅎ이 앞ेश와 같이 두 語意素를 圓滑히 連結하여 넘어가는 구실을 하거나, 아예 그런 機能을 할 수 없을 때는 脫落해 버린다.

예를 들면, ‘좋아서 → 조아서’等인데 이런 點으로 보아서도 介入된 ‘ㅎ’이 先行語 末音을 閉鎖한다는 ‘ㅎ’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그 理由는 ‘ㅎ’이 喉頭音이나 聲門音이 아니고 뒤에 오는 母音과 調音點이 一致한다는 앞서 引用한 理論을 따른다면 ‘ㅎ’과 ‘ㅎ’의 發音은 差異가 있게 되고 그 機能은 다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濟州 方言에서 助詞와 ‘ㅎ’音이 介入되는 例는 資料 다)가 고작인데 ‘ㅎ’이 介入된 形態가 많지 않은 것은 文獻에 定着하지 못한 點도 있고, 言衆들이 發話時 習慣적으로, 無意識的인 簡易化를 擇했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ㅎ’은 원래 助詞에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一部 助詞에 介入되기도 했었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며, 介入의 原因은 音節境界를 分明하게 하려는 努力이며 一種의 強化에서 일어난 現象이다.

이제까지 方言을 通해서 얻어진 見解를 要約하면, 音의 連結에서 juncture의 狀態에 따라 韻의 變化의 要因이 생기게 되고 音長이나, 休止(pause)가 있을 때는 後行語 첫소리를 原音대로 發音이 可能하게 되고 閉鎖連結(closed juncture)일 때는 어떤 音素(形態素·韻素等)의 介入이 不可避하게 되며, ‘스’이나 ‘ㅎ’은 이러한 要求에 依한 介入으로 본다. 스와 같은 ‘스’와 ‘ㅎ’은 變異音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ㅎ’과 ‘ㅎ’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前者는 硬音化, 後者는 有氣音化시키는 形態素로 보아 둔다.

그리고, ‘사잇소리’와 같은 文法的 機能으로는

- ① 並列의 關係: an-phat 등
- ② 類屬의 關係: su-čhiε(수키와) 치가흠집 등
- ③ 混雜의 關係: tol-khiji (돌틈에 박혀 있는 등과 배의 접질이 단단한 계(蟹)의 一種이나, 고집이 센 사람이나 인색한 사람)

등으로 分類가 可能하며, 構文論的 機能의 分類도 可能하다고 본다.

스이나 ‘ㅎ’의 介入은 前後音의 影響으로 變化를 일으키는 結合的 變化<sup>75)</sup>에 依한 것임을 밝혀 둔다. 先行語 有聲音 末音과 後行語 첫소리가 破裂·破擦音일 때 音長이나 休止를 일체 갖지 않으면, 後行語 첫소리는 有聲音化하든지, 音의 弱화로 脫落하게 된다.

예를 들면 ‘pulmi čil’의 發音은 [pulmizil]로 č가 ‘z’로 有聲音化 하기로 하고 ‘pori pat’이 [paribat] → [poriwat]으로 [p/ b/ w]로 有聲音化 내지 脫落되어 진다고 본다. 이

75) 李學壽(1961), 上揭書, p. 60.



러한 有聲音化나 脫落을 防止하고 後行語 첫소리를 強化시키고 先行語 末音を 完全하게 閉鎖시키는 機能으로 介入의 形態素인 ‘ㅎ’ 등이 들어가 硬音化·有氣音化시킨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理由에서 ‘ㅎ’이 介入되어 有氣音化 시켰다고 본다.

## Ⅱ. 文獻語에서 ‘ㅎ’의 介入

文獻語에서 ‘ㅎ助詞’나, ‘ㅎ末音體言’, ‘ㅎ插腰音’, 또는 添音에 關해서는 國內의 學者들이 意見을 달리하면서 거의 論盡이 되어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問題는 文獻語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ㅎ’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處理해야 할까 하는 點이다. 그래서 筆者는 濟川 方言을 通해서 얻은 見解를 조심스럽게 文獻語에 對比시켜 보고자 한다.

勿論, 文獻語와 濟川 方言 사이에는, 音韻體系나, 言語環境 등을 考慮한다면 試도의 對比는 不可能하지만, 序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濟川 方言이 文獻語와 어떤 關聯이 있다는 點을 바탕으로 하면 對比도 可能하리라 보며, 또한 方言을 通한 文獻語의 考察이라는 點에 意義를 두고자 한다.

### 1. 資料의 提示

- ② 마술(秋) [複]마숄, 마숄밤, 마을(秋)뭇
- ⑥ 고(鼻) [複]고키리, 고기리, 코키리
- ⑪ 녹말(蔬) [複]녹말밤, 녹말밥
- ⑫ 날(刀) [複]날가래
- ⑬ 나라(國) 나라똥
- ⑭ 나초(夕), 나죄(夕) [複]나젓비
- ⑰ 네(四) [複]네가지, 네말 네찰
- ⑳ 돌(石) [複]돌비늘
- ㉑ 돌(二) [複]돌찰
- ㉒ 바(索) [複]바늘
- ㉔ 불(火) [複]불뚝, 불뚝
- ㉕ 비술(酒) [複]비술뚝
- ㉙ 술(酒) [複]술편당, 술기름
- ㉚ 세(三) [複]세길, 세번, 세다섯
- ㉛ 수(堆) [複]수갈, 수터새, 수더새, 수개, 수괴, 수톱, 수뚝, 수뚝
- ㉞ 스물(二十) [複]스물다섯, 스물차린

- 62 시내(溪) [複]시냇길
- 65 안(內) [複]안팎
- 67 암(雌) [複]암개, 암괴, 암퇘지, 암똥, 암똥, 암똥, 암똥새
- 69 여러(諸) [複]여러가지
- 71 열(十) [複]열가지
- 75 울(離) [複]울조, 울갓
- 78 이(此) [複]이들
- 80 조(衆) [複]조각별, 조발
- 85 하늘(天) [複]하늘뜰, 하늘뜨래, 하늘뜨래

(위 내용은 南廣祐教授의 「國語學論文集」(1960)에서 뽑았으며, 85個 語彙 中에 体言과 助詞의 例와, 出典은 筆者가 省略했음)

## 2. 先行研究 紹介 및 分析

文獻語에서 ‘ㅎ’의 問題를 다룬 여러 學者들의 理論을 紹介하면

### 前 間 恭 作

前 間 恭 作은 어떤 一部の 名詞가 助詞를 取함에 ㅎ音을 介하는 것은 語幹으로 본다고 簡單히 言及했는데, 이것이 現代에 와서 가장 처음 다룬 說이다.<sup>75)</sup>

### 小 倉 進 平

小 倉 進 平은 鄉歌를 解讀하는 가운데서 李朝初期의 助詞에 「이·은·을·에·으로」가 그대로 쓰인 境遇와, 그것이 「히·흔·훈·해·호로」로 變해서 쓰인 境遇가 있다 하고 그것은 위에 오는 名詞에 依해서 그렇게 되며, 이 ㅎ音이 舊 名詞의 末部에 包含되어 있는 것인가는 지금 判別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76)</sup>

### 梁 柱 東 教授

梁 柱 東 教授는 此種 特殊名詞의 各格形 「히·해·훈·훈·호로」 등의 ‘ㅎ’音은 名詞에 屬한 것이 아니다, 單獨히 格助詞에서 連音素 「ㅎ」를 慣用하던 古音의 習慣이 此等語에서 그 傳統的 變形을 受하고 있다. 此等語가 「코·와」를 「코·와 로」로 轉換하는 作用이 있고, 또한 下音 「기·기·기·스」를 「기·로·로·스」로 有氣音化하는 作用이 있음도 그 連音素 「ㅎ」의 作用이다. 現行語 「조참·압천·수탈」 등은 모두 그 遺痕인데 ㅎ은 元來 格助詞뿐 아니라 用言에도 「一ㅎ型」으로 盛히 使用되었다.<sup>77)</sup>

75) 前 間 恭 作(1962) ; 『ㅎ音攷』, (서울 : 東國大學), pp. 71~72에 1) 引用.

76) 小 倉 進 平(1955) ; 『古歌研究』, (서울 : 博文出版社), pp. 192~201.

### 金 敏 洙 教授

ㅎ音의 本質·性質·末音 規則에서

①, ㅎ音은 聲門音 以外の 모든 子音과 混合할 수 있으며 特히 破裂音과 混合할 때에 顯著하게 나타난다.

②, 末音이 摩擦音은 閉鎖音으로 變化한다. 聲門 摩擦音인 ㅎ音이 聲門에서 閉鎖되면 다음音의 發音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位置를 變해서 同類의 音인 ㅅ의 發音位置에서 閉鎖하게 된다. 이리하여 末音이 ㅎ은 ㅅ으로 變換한 것이 있다.

③, 末音으로서의 ㅎ은 音理上으로 보아 그 ㅎ音이 脫落해 없어지는 수가 많다.

④, ㅎ音은 變音하지 않고 本然의 音 그대로는 받침으로 發音되지 않는다고 하고, 結論으로 插腰音을 認定할 수 없거니와, 이 ㅎ音은 音韻上의 挿入도 아니요, 當當한 名詞의 部分으로서의 末音이다. 이 名詞는 ㅎ을 取하는 名詞도 될 수 없다.<sup>79)</sup>

### 李 熙 昇 教授

“사이ㅅ”과 ㅅ 같은 現象으로서 “사이ㅎ”이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수ㅎ개) 수개·수ㅎ담·수ㅎ말(이의 例 省略)等 合成語 中間에 나타나는 “ㅎ”音은 先行語의 받침이라 볼 수도 없고, 또 後續語의 頭音에 包含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은 별수 없이 “사이ㅅ”과 같은 插腰音이라 斷定하지 않을 수 없다. 『맞춤법 統一案』에서는 “사이ㅎ”을 認定하지 않고, 發音대모(수개·암탐 等과 같이) 表記한 것을 規定 하였으나, 이 處理案과는 別個 問題로 우리의 言語 現實上 “ㅎ”插腰音이 存在한 것만은 嚴然한 事實이다.<sup>80)</sup>

### 金 亨 奎 教授

氣候風土說을 바탕으로 하여 ‘Altai 語族에 있어 그 祖語에 ㅎ音의 存在에 對해서 疑心을 품는 情形도 있으나, 韓國語에 限해서는 일찍부터 ㅎ音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 語幹 ‘ㅎ’音의 脫落現象을 通해서 볼 때 ‘ㅎ’音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둘째, 語末에 ‘ㅎ’音을 가진 体言을 찾아 보면 古代에 올라 갈수록 더 많았으리라는 考證이 成立된다고 하고 ‘ㅎ’末音 体言은 体言 末音에 나타난다는 差異가 있다. 或, 이를 介入으로 본다 해도, 語彙의 語形에 直接 介入되는 것이 아니라 語彙와 또 사이에, 또는 語彙의 語彙의 連結되는 사이에 나타난다는 事實만은 不認할 수 없는 것이다.<sup>81)</sup>

### 李 崇 寧 教授

基本形의 形態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曲用에서 ㅎ가 나타나누 事實이다.

알리는 이드롭 길의 없던 門계를 하로히 불기시니(龍30)

79) 金敏洙(1979), 『5助詞研究』, 『國語國文』11, (부록: 國語學 文苑), pp.11~14.

80) 李熙昇(1963), 『言語學』, pp.245~286.

81) 金亨奎(1979), 『言語學』, pp.168, 285~286.

여기서 處格的 “에”가 “헤”로, 主格的 “이”가 “히”로 나타난다는 特異한 事實에 對해서도 語幹이 “ㅎ”까지나 “ㅎ”이 插入이냐의 여러 異見이 있지만, 여기서는 -h-曲用으로 보아 둔다.<sup>82)</sup>

#### 許 雄 教授

“体言의 끝소리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도하, 도하니, 도흠, 도코, 도티아니 好다(好)와 같은 用言의 語幹과 語尾 사이에서 나는 aspirate는 모두 語幹의 끝소리로 보는 것이니 위에 든 말들이 ㅎ도 이와 꼭 같은 것이므로 体言의 끝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中略) 現代語의 「안틀다, 살코기, 암탉, 수탉, 암키아, 수키아, 안해」 따위 말이 aspirate는 모두 옛 ㅎ 끝소리의 자취이다.<sup>83)</sup>

#### 南 廣 祐 教授

李朝初期 文獻上 体言末音 [k] [t] [p] 다음에 ㅎ音의 介入이 없음은 体言과 格助詞를 區別하지 않고 連綴하던 關係이며, 鄉歌의 表記에서나 李朝 後半期 文獻에서 보거나 그 밖의 aspirate化 現象으로 보면 [k] [t] [p] 終聲 다음에도 ㅎ音은 後續할 수 있으며, 이 “ㅎ”音이 介入으로 原形을 內破裂 시키던 作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中略) ‘ㅎ’等 音의 介入은 모두 連音 關係에 依한 音韻論的 事實이며(中略), 複合語“암탉, 수캐……”등도 体言 終聲으로 볼 것이 아니라 聽覺映像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것으로 偶發的·副次的인 ㅎ音의 介入으로 보려한다. 그것은 ㅎ曲用化하던 말들이 複合語에 있어서 有氣音化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으며 硬音化로 聽覺映像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古今을 通하여 많음에서 그리 볼 것이다. 所謂 尊敬의 呼格助詞 “하”의 發生도 客體를 뚜렷하게 發音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 ㅎ曲用語의 ㅎ介入現象과 相通하는 것으로 본다.<sup>84)</sup>

#### 金 英 培 教授

連音素 [ㅎ]은 上古時代에는 廣範圍하게 使用되었겠으나, 近世 文獻에 定着된 것이 約 90語 가량이며, [ㅎ]은 体言의 一部가 아니고 純全히 上下音이 連音 關係에 依한 音韻論的 現象이다.<sup>85)</sup>

#### 李 基 文 教授

“石”의 의미한 단어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 “돌”로, 母音으로 시작된 語尾들 앞에서

82) 李崇寧(1961) ; 上揚書, pp. 131~135.

83) 許雄(1961) ; 上揚書, p. 31.

84) 南廣祐(1982) ; 『河嶺語學論文集』, (서울 : 一講社), pp. 218~220.

85) 金英培(1958) ; 『ㅎ特殊名詞考』, (서울 : 東國大學校), p. 103.

—— (1962) ; 『ㅎ音效』, (서울 : 東國大學校), p. 51.

는 ‘돌히, 돌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共時的 觀點에서는 전혀 문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名詞 語幹은 音韻論的으로 條件된(phonologically conditioned) 自動的인 交替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交替는 語末 h가 뒤에 母音이 올 때는 나타나고, 子音(共同格 語尾k)이 올 때는 이것을 有氣音化하며 休止(pause)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基因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령 名詞語幹 kaps/kap(價)의 交替와 전혀 同一한 성질의 것이다. 이 경우는 母音間에 세 子音, 音節末에 두 子音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子音으로 시작된 接尾辭가 오거나 休止 앞에서는 kaps의 s가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交替에서 異形態 중 torh, kaps를 각각 基本形으로 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리다.<sup>86)</sup>

### 劉昌惇教授

“어떤 名詞는 그 活用에서 語幹·語尾사이에 /ㅎ/이 添加한다. 訓民正音 解例 用字例에 提示된 語彙는 應當 그 原形을 엄밀히 따져서 例示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뵈爲臂, 뵈爲山, 마爲薯, 자爲尺, 울爲籬’로 表記되어 있는 바 이들 名詞는 그 活用에서는 다음과 같이 ㅎ添音活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中略)

여기서 혹은 “뵈, 뵈”와 같이 /ㅎ/을 “뵈 뵈”의 末音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15世紀 當代의 言語現象을 가장 正確히 把握했으리라는 正音制作에 參劃한 學者들이 解釋으로는 ㅎ終聲語辭라고는 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기에 ㅎ添音活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생각된다고 하고, …合用終聲의 後行終聲과 한가지로 先行終聲과 先行音節의 音價를 固守하고 後行子音의 變音을 막고 語幹 分化의 구실을 돕기 위한 介子音 ㅎ으로 보고자 하는 바이다. ㅎ음이 體音의 末音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 몇가지로 알 수 있다.

- a) 單獨으로 쓰일 때는 ㅎ末音 表記가 없다.(例 省略 以下同)
- b) 複合詞에서는 他語와 마찬가지로 사이스만 쓴다.
- c) 冠形詞形에서는 ㅎ이 없다.
- d) 對立의 境遇에는 ㅎ이 없다.<sup>87)</sup>

### 朴炳采教授

“ㅎ助詞가 붙는 特殊名詞! 또는 「ㅎ曲用語」라 부르는 說이며, 다른 하나는 「ㅎ」이 體音에 붙는 것이 格語尾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ㅎ終聲體音」이라고 부르는 說이다. 이 두 說 중에서 前者는 後者 「ㅎ終聲體音」으로 보는 見解를 取한다. 왜냐하면 曲用時에 나타나는 「ㅎ」은 어떤 特殊한 音과의 連結에서 일어나는 音韻論的 現象이라고는 볼 수 없고 鄉歌의 表記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 古代國語에서 語辭 自体가 末音에 氣息音 「ㅎ」을 많이

86) 李崑文(1980b); 「改訂版 國語史概說」, (서울: 民衆書館), p.251.

87) 劉昌惇(1973); 「李朝國語史研究」, (서울: 高明文化社), p.111.

金英培(1962); 「ㅎ音效」에서 再引用.

保有했으리라하는 점에서 ㅎ終聲体言으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格語尾에서 氣息音化하는 母音形뿐만 아니라 子音形(과-共同格)에서도 나타남을 볼 때 ㅎ이 作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古代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氣候風土說과 有關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sup>89)</sup>

이상의 先行研究들은 다음대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가) 前田恭作·金敏洙·金亨奎·許雄·李基文·朴炳采教授: ‘ㅎ’은 体言의 末音이다.

나) 小倉進平·李崇寧教授: 斷定은 主知하고 曲用으로 보아 두었다.

다) 李熙昇·南廣祐·金英培·劉昌惇教授: ‘ㅎ’은 添音이나 插腭音으로 介入이다. 등으로 보고 있다.

라) 梁柱東教授: 連音素로서 ㅎ은 介入된 것이다.

위와 同차(을 다시 가르면 다)와 라)는 接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資料의 分析 및 考察

앞의 引用資料를 通해서 보면 複合語 表示는 26個語에 불과하나 그에 따른 것까지 포함하면 총 53個(같은 뜻의 말도 포함해서) 語彙가 보인다. 그 外에는 助詞와의 連結로 되어 있는데 먼저 複合語(名詞와 名詞)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複合語를 이룰 때 ‘ㅎ’이 介入되지 않은 것이 절대적으로 少数하여 53語彙 中 13이고 ‘ㅎ’이 介入된 것은 約 40語彙로 안팎·수터새·수툼·물갯’ 등이며, 其中에는 ‘ㄴ울밤 ㄴ울밤 ㄴ비날 ㄴ울조’ 등에서는 ㅅ잇소리 ‘ㅅ’이 介入된 것들도 있다. 그 外에는 대부분 平音으로 表記되고 있다.

表記와 發音은 여러 가지 面에서 差異가 있겠지만 ‘ㅎ·ㅅ’이 介入된 것이나 介入이 되지 않은 것들도 混用의 可能性을 엿보게 되며, ‘ㅎ·ㅅ’이나 音長·休止 等은 같은 機能을 音節의 連結時에 한다고 보아지므로 濟州 方言에서와 大同小異하다고 본다. ‘ㄴ울밤, ㄴ비날, ㄴ비날, ㄴ기름, 수개, 수툼, 양개, 알디새’ 등은 文獻語 表記로는 平音으로 되어 있으나 濟州 方言에서는 能히 有氣音으로 發音될 수 있는 것들이며, 該地語에서는 대체로 硬音으로 發音되어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文獻語의 表記를 發音한 때 音의 長短이나 休止를 意識적으로 介入한 事있다면 先行語 末音이나 後續語 ㅅ잇소리는 原音에 恰當히 發音될 수가 있었겠으나, 그러나 實際 言衆의 發語에서는 音長이나 休止를 除去해 버렸다면, 後行語 ㅅ잇소리나 先行語 末音은 變音될 處에 놓이게 되어 語意의 混亂로 豫상되며 聽覺印象도 分明하지 못하므로 先行語 末音을 固定시키고 後續語 ㅅ잇소리를 強化시키기 위하여 ㅅ잇소리나 ‘ㅎ’을 介入시켰다고 본다. 그

89) 朴亨澤(1977): 『高麗漢語의 音變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p.108.

러므로 두 개의 語意도 主從의 關係가 이뤄져서 單意節化되므로 傳達의 便宜도 얻게 된다고 본다.

‘ㄴ을, 길췌, 돌비늘’ 등에서는 硬音으로 發音이 되어질 것이고, ‘ㄴ을 들, 돌비늘 등’은 濟州 方言에서는 ‘ㅎ’이 介入되어 ‘ㄴ을틀, 돌피늘’이 可能해질 것이다. 또 그렇더라도 語意的 分化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現象은 開放連接이나, 閉鎖連接이나에 따라 사잇소리나 ‘ㅎ’이 介入되었을 것이고, 또한 音長이나 休止가 介入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文獻語에서 体言과 助詞가 連接될 때에 ‘ㅎ’이 介入되는 일이 있다.

南廣祐教授의 ‘ㅎ’과 助詞의 資料를 分析해 보면,

体言末音 ㄴ 아래 34語

ㄴ 아래 5語

ㄷ 아래 2語

ㅇ 아래 2語

体言末音이 母音 아래

ㄱ 아래 11語

ㄲ 아래 13語

一, ㅍ 아래 各 3語

ㅂ, ㅅ, ㅆ 아래 各 2語

ㅋ, ㆁ, ㆅ, ㆆ, ㆇ, ㆈ 各 1語씩이다.

以上에서도 体言末音은 全部 有聲音이며 그 아래에서만 ㅎ이 介入된 것은 앞에서 ‘사잇소리’ 介入의 例와 一致함을 發見하게 되고 ‘ㅎ’이 助詞에도 介入되는 경우는, 体言末音이 有聲子音일 때 母音 助詞가 오면, 体言과 助詞가 連接될 때는 閉鎖連接이 되거나 內部結合이 되어야 하는데 連音과 連綴의 關係로 体言이 本來의 形態를 維持하지 못함은 勿論 語意에도 混亂을 불러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다.

例를 들면

‘ㄴ을(陰) 이’

‘상(常) 애’

‘안(內) 이’

‘암(雌) 은’

물인데 ‘ㄴ을 이’를 閉鎖連接과 連音·連綴를 지키면 原音은 ‘kɔnɔl i’인데 實際 發音은 kɔnɔri 가 되어 舌側音 /l/이 舌顫音 /r/로 變하게 되고, 語意的 混亂도 예상되어, 發音

하기에 便利한 ‘ㅎ’을 介示시킨 것으로 본다.

李崇寧教授도 “ㅎ(oo), (oo)”음은 聲門音이며 옛날에는 喉音이라 했다. “ㅎ”음에 대해서 는 特記할 것이 없으나, ‘ㄹㅎ’一型이 發音된 듯 잘 表記되어 있다<sup>89)</sup>고 보았으며 또 母音 助詞에서는 ‘ㄹ’아래가 단연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안(內)이’도 連音을 시켰을 때는 ‘an i’가 모리어 구개음화되어 [aŋi]로 發音 이 되어音節의 境遇는 勿論 語意나 發音도 分明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ㅎ’이 介示으로 休音의 形態를 그대로 維持하고 助詞는 強化되고 音節境界는 分明하며 內部結合을 이루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休音 末音이 母音이고 이어서 母音 助詞가 올 때, 開放連接일 때는 音長이나 休 止가 있어서 제 音대로 發音된다고 보나 閉鎖連接일 때는 두 母音사이에 子音 介示이 不可 避하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근(根)이, 나(年)이, 나조(夕)이, 내(川)이, 내(四)이, 너(箭)이, 뒤(後) 이, 모(隅)이, 외(外)이, 미(野)이’

동일케 이들을 縮約이 아니면 脫落이 된다. 그러므로 縮約한 것은 하고 또 脫落한 것은 했지만 介示의 形態素가 必要해서 ㅎ이 介示되어 더 音節의 境界나 語意를 分明히 하면서 強化되었다고 본다.

子音助詞를 보면,

休音末音 母音 아래 19語

子音 아래 9語

기타 ‘간(澮)과, 안(內)과’가 있다.

休音 末音이 有聲音이던 閉鎖連接으로 助詞와 連結될 때는 子音 助詞도 變音될 위치에 있게 된다. 文獻語에서는 ‘母音이나 子音 아래에서는 먼저 ‘ㄱ’이 탈락한다<sup>90)</sup>는 理論에 따르면 앞 資料에서 동만격조사 ‘과’의 變形 ‘과’는 全部 23語가 脫落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나라토’ ‘닐토’ ‘물토’ ‘세토’ ‘조토’의 5語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갈과’는 ‘갈 와’가 되고 ‘나라과’는 ‘나라와’가 되어 ‘ㄱ’이 탈락되어야 할 터인데 모리어 ‘ㅎ’이 介示 으로 強化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同一 補助詞 ‘도’도 以上과 같은 現象으로 有聲音化의 防止나 強化로 ㅎ이 介示되었다고 본다.

89) 李崇寧(1961) ; 上掲書, p.38.

90) 李崇寧(1982) ; 上掲書, p.205에서 ‘可音性’이란 말로 說明하고 있다.

91) 李崇寧(1982) ; 上掲書, p.67.



#### 4. 聲調와 助詞

‘강’系人 助詞의 聲調 表記는 아래와 같다.

1. 반 <sup>○</sup> 들 <sup>○</sup> 히	12. 짜 <sup>○</sup> 히 <sup>○</sup> 어 <sup>○</sup> 나	23. 녀 <sup>○</sup> 희 <sup>○</sup> 니	34. 받 <sup>○</sup> 터 <sup>○</sup>	45. 우 <sup>○</sup> 짜 <sup>○</sup>	56. 나 <sup>○</sup> 흐 <sup>○</sup>	67. 뜰 <sup>○</sup> 흐 <sup>○</sup>
2. 나 <sup>○</sup> 라 <sup>○</sup> 들 <sup>○</sup> 히	13. 짜 <sup>○</sup> 호 <sup>○</sup> 로 <sup>○</sup> 시	24. 녀 <sup>○</sup> 희 <sup>○</sup> 는	35. 받 <sup>○</sup> 터 <sup>○</sup>	46. 우 <sup>○</sup> 희 <sup>○</sup> 셔	57. 짜 <sup>○</sup> 히	68. 뜰 <sup>○</sup> 해
3. 나 <sup>○</sup> 라 <sup>○</sup> 들 <sup>○</sup> 해	14. 안 <sup>○</sup> 호 <sup>○</sup> 로 <sup>○</sup> 도	25. 녀 <sup>○</sup> 희 <sup>○</sup> 로	36. 받 <sup>○</sup> 터 <sup>○</sup> 로 <sup>○</sup> 써	47. 우 <sup>○</sup> 희 <sup>○</sup> 며	58. 짜 <sup>○</sup> 했	69. 뜰 <sup>○</sup> 흐
4. 소 <sup>○</sup> 리 <sup>○</sup> 들 <sup>○</sup> 히	15. 안 <sup>○</sup> 히 <sup>○</sup> 러 <sup>○</sup> 니	26. 녀 <sup>○</sup> 희 <sup>○</sup> 로	37. 얹 <sup>○</sup> 히	48. 우 <sup>○</sup> 희 <sup>○</sup> 며	59. 짜 <sup>○</sup> 해	70. 안 <sup>○</sup> 히
5. 녀 <sup>○</sup> 희 <sup>○</sup> 들 <sup>○</sup> 히	16. 안 <sup>○</sup> 히 <sup>○</sup> 어 <sup>○</sup> 나	27. 녀 <sup>○</sup> 희 <sup>○</sup> 며	38. 얹 <sup>○</sup> 혀 <sup>○</sup> 셔	49. 긴(組) <sup>○</sup> 흐	60. 짜 <sup>○</sup> 흐	71. 안 <sup>○</sup> 흐
6. 녀 <sup>○</sup> 희 <sup>○</sup> 들 <sup>○</sup> 히	17. 뜰 <sup>○</sup> 히 <sup>○</sup> 라 <sup>○</sup> 도	28. 녀 <sup>○</sup> 희 <sup>○</sup> 며	39. 우 <sup>○</sup> 흔	50. 긴 <sup>○</sup> 흐	61. 짜 <sup>○</sup> 희	72. 안 <sup>○</sup> 해
7. 짜 <sup>○</sup> 히 <sup>○</sup> 들 <sup>○</sup> 와	18. 뜰 <sup>○</sup> 히 <sup>○</sup> 어 <sup>○</sup> 나	29. 녀 <sup>○</sup> 희 <sup>○</sup> 며	40. 우 <sup>○</sup> 흔	51. 긴 <sup>○</sup> 히 <sup>○</sup> 라	62. 짜 <sup>○</sup> 히	73. 안 <sup>○</sup> 해
8. 우 <sup>○</sup> 리 <sup>○</sup> 달 <sup>○</sup> 히	19. 나 <sup>○</sup> 라 <sup>○</sup> 히 <sup>○</sup> 어 <sup>○</sup> 나	30. 녀 <sup>○</sup> 희 <sup>○</sup> 며	41. 우 <sup>○</sup> 흔	52. 길 <sup>○</sup> 흐	63. 짜 <sup>○</sup> 히 <sup>○</sup> 니	74. 안 <sup>○</sup> 했
9. 우 <sup>○</sup> 리 <sup>○</sup> 달 <sup>○</sup> 히	20. 스 <sup>○</sup> 물 <sup>○</sup> 히 <sup>○</sup> 어 <sup>○</sup> 나	31. 뜰 <sup>○</sup> 터	42. 우 <sup>○</sup> 흔	53. 길 <sup>○</sup> 해	64. 짜 <sup>○</sup> 히 <sup>○</sup> 라	75. 안 <sup>○</sup> 히 <sup>○</sup> 며
10. 우 <sup>○</sup> 리 <sup>○</sup> 달 <sup>○</sup> 히	21. 녀 <sup>○</sup> 희 <sup>○</sup> 러 <sup>○</sup> 시 <sup>○</sup> 니	32. 뜰 <sup>○</sup> 터	43. 우 <sup>○</sup> 희	54. 길 <sup>○</sup> 호 <sup>○</sup> 로	65. 짜 <sup>○</sup> 히 <sup>○</sup> 라	76. 뒷 <sup>○</sup> 해
11. 우 <sup>○</sup> 리 <sup>○</sup> 달 <sup>○</sup> 흐	22. 뜰 <sup>○</sup> 히 <sup>○</sup> 러 <sup>○</sup> 시 <sup>○</sup> 니	33. 뜰 <sup>○</sup> 터 <sup>○</sup> 라	44. 우 <sup>○</sup> 희	55. 나(歲) <sup>○</sup> 히	66. 뜰(庭) <sup>○</sup> 흐	77. 뒤 <sup>○</sup> 히

(以上の 資料는 鄭然榮教授의 ‘國語聲調에 關한 研究’에서 뽑은 것이며, 出典은 「小學諺解」로 傍點表記는 스인데 筆者의 임의로 引用 變形했음)

以上 引用한 77個의 助詞에서 보면 去聲이 아닌 助詞는 10개이나, 그 10개 中 똑 같은 條件인대로 去聲인 경우와 平聲인 경우는 4. 녀<sup>○</sup>희<sup>○</sup>들<sup>○</sup>히 6. 녀<sup>○</sup>희<sup>○</sup>들<sup>○</sup>히, 8. 우<sup>○</sup>리<sup>○</sup>달<sup>○</sup>히 10. 우<sup>○</sup>리<sup>○</sup>달<sup>○</sup>히 9. 우<sup>○</sup>리<sup>○</sup>달<sup>○</sup>히 39. 우<sup>○</sup>흔 41. 우<sup>○</sup>흔 65. 짜<sup>○</sup>히<sup>○</sup>라 64. 짜<sup>○</sup>히<sup>○</sup>라, 72. 안<sup>○</sup>해 73. 안<sup>○</sup>해’ 등은 混記나 誤刻의 例로도 볼 수 있겠으며, 21. ‘녀<sup>○</sup>희<sup>○</sup>러<sup>○</sup>시<sup>○</sup>니와 22. ‘뜰<sup>○</sup>히<sup>○</sup>러<sup>○</sup>시<sup>○</sup>니’는 特別히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56.의 ‘나<sup>○</sup>흐’도 다른 例에서는 去聲으로 쓰였음을 볼 수가 있다. 오직 74. ‘안<sup>○</sup>했’만이 上聲이 되어 있어 絶對적으로 나머지는 去聲이 많음을 보여 준다.

去聲은 ‘가장 높은 소리’라는 規定이 있어서 強化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語末 語尾는 大部分 去聲인데 그것도 語末 語尾나 助詞를 強化시켜서는 努力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音長의 面에서 높은 소리는 短音이요, 낮은 소리는 長音<sup>91)</sup>으로 처리한 點으로 보아 이기에서도 ‘高’이 主入, 強化로 본다. 聲調에 關해서는 上聲은 長音으로 發展하고 去聲은 短音으로 發展했다는 見解와 一致하는 것으로 ‘高’는 短音이라는 생각을 固히하는 道理이 된다. 그렇다면 助詞에 있어서도 休言과 連接될 때는 閉頭連接이나 內部

91) 鄭然榮 (1981) : 上掲書, p.127.

方言學會報(1980) 方言學方, 2(1), (卷首 : 方言學 1), p.334.

結合을 했다는 점은 充分히 傍證은 成立되어 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ㅎ’이 介入으로 助詞의 強化와 閉鎖連接을 시키는 機能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지도 언급했지만, 濟州 方言에서는 ‘ㅎ’이 介入된 助詞가 文獻語에 비해 많이 發見되진 않지만 그것은 助詞의 機能으로 보아 省略도 可能할 때도 있고, 接續의 機能을 하므로 弱화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5. 尊稱呼格助詞 ‘하’에서 ‘ㅎ’의 機能

文獻語에서 尊稱呼格助詞라는 ‘하’가 있다. ‘ㅎ’에 關係서는 ‘ㅎ’은 連音素<sup>92)</sup>로도 보고, 音韻論的 現象으로 介入<sup>93)</sup>으로도 보며 ‘하’는 強調形呼格接尾辭로 感情表出의 心理的 表記意識에서 發達한 形態<sup>94)</sup>로 보기도 한다.

筆者는 여기서도 ‘ㅎ’의 介入으로 助詞를 強化시켜 尊敬의 뜻으로 使用됐다고 보려 한다. 그 理由로는,

國語의 造語法에서나 構造的 特質面에서 본다면 配意性(motivation)이 짙어 한 語나 形態素(morpheme)가 本來의 意味를 가진 채, 다른 要素와 결합하여 새로운 複合語나 派生어를 만드는 것<sup>95)</sup>을 말함인데 亦是 助詞에도 적용되어 ‘하’는 呼格助詞 ‘-아’에 ‘ㅎ’이 介入되어 尊稱이나 強調의 機能을 하고 있다고 본다.

文獻에서 使用例를 찾아보면<sup>96)</sup>

1. 比臣<sup>하</sup>하 釋譜(十三, 13.1)
2. 禮尊<sup>하</sup>하 ( // 二十四9.1)
3. 하<sup>하</sup>하 ( // // 51.2)
4. 阿難<sup>하</sup>하 ( // 二十三5.1, 二十四, 9.2)
5. 부처<sup>하</sup>하 (月印 其91)
6. 남금<sup>하</sup>하 (龍歌)125章)

(·은 去聲의 表示임.)

以上の 用例는 및 인되나 여러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고 본다.

92) 梁柱東(1965) ; 上揭書, pp.40~41.

93) 吳廣五(1982) ; 上揭書, p.220.

94) 朴熙采(1973) ; 上揭書, pp.36~37.

95) 千時權·李宗澤(1967) ; 上揭書, p.26.

96) 金英培(1977) ; 釋譜詳訂, 第二十三·第二十四註解], (서울: 一潮閣), p.16, 32, 229.

朴熙采(1974) ; 上揭書, p.296.

國語學會(1966) ; 國語學論叢], (서울: 國語學會), p.63.

것에, 先行語 末音이 모두 有聲音이라는 點으로 ‘ㅎ’이 介入되는 助詞들과 一致하고 있으며

둘째, 聲調가 ‘-아’助詞일 때는 尊稱이든 非尊稱이든 去聲이고

셋째, ‘-아’助詞의 聲調는 平聲이라는 點으로 봐서도 休言과 助詞의 連接時 ‘ㅎ’이 介入으로 強化된 音으로 보아진다.

1의 ‘比丘尼하루뫼양조물보아라’는 文章으로 보아서는 ‘-아’는 非尊稱이며 複數 接尾辭 ‘들’을 元來 ‘ㅎ’이 介入이 可能的 點인데 呼格助詞 ‘-아’와 連接에서 ‘ㅎ’가 介入된 形態임이 分明하다.

2, 3, 5, 6은 音韻的인 面에서도 先行語 末音이 有聲音이라는 點도 一致하고 聲調도 一致하므로 ‘ㅎ’이 介入으로 ‘-아’의 助詞를 強化했다고 보아진다.

‘比丘尼하’와 같은 예에서 呼格의 ‘아’가 休止를 維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강한 呼格이라는 見解<sup>7)</sup>는 妥當하다고 본다.

### 三. 結 語

以上에서 考察한 바를 筆者 나름대로 綜合하여 맺어 보면,

1. 複合語를 形成할 때에는 音의 連結時 先行語 末音과 後行語 첫소리 사이에는 어떤 變音의 要因이 介入되는데 그것은 音의 長短, 休止(pause), ‘사잇소리’등의 有無에 따라서 後行語 첫소리는 決定된다.

2. 濟州 方言에서 先行 休言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行 休言 末音이 破裂·破擦 平音일 때 複合語를 이루면 後行語 첫소리는 介入된 音素(形態素·韻素 等)에 따라 平音·硬音·有氣音으로 나게 되는데 無聲 平音으로 나는 境遇는 거의 不可能하고, 音長이나 休止(pause)의 介入으로 有聲 平音이 되고, 硬音으로 날 때는 所謂 ‘사잇소리’의 介入이고, 有氣音化될 때는 ‘ㅎ’의 介入으로 본다.

3. 濟州 方言에서는 音의 長短이 辨別的 機能(示差的 機能)을 하지 못한다.

4. 介入된 ‘ㅎ’은 ‘사잇소리’의 機能을 한다. 다만, ‘사잇소리’는 後行語 첫소리를 硬音化시키나, ‘ㅎ’은 有氣音化시키는 點이 다르다.

5. ‘사잇소리’가 앞소리를 一重 深韻하고 뒷말을 띄게 하는 方面, ‘ㅎ’은 先行語 末音

7) 金完謙(1981) ; 上掲書, p.129.

속 分明히 發音하게 하고, 後行語 첫소리를 有氣音化 시키면서 圓滑히 發音되게 하여 強化한다.

6. 体音과 母音 助詞 사이에서 ‘ㅎ’의 介入은 平音(硬音) 有氣音 等과 같은 強化로 보며, 連音의 防止로 音節境界를 分明히 하게 한다.

7. 聲調에 依한 助詞의 表記나, 尊稱 呼格 助詞의 去聲으로의 一致는 역시 強化임을 證한다.

8. 子音 助詞 ‘과, 도’ 等도 子音脫落이나 有聲音化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道理에 ‘ㅎ’의 介入으로 強化되어 ‘라, 토’로 되었다.

9. 文獻語에서 体音과 体音의 複合語를 이룩 때 後行語 첫소리가 有氣音化한 語例가 적은 것은 聲調나 音의 長短이 剩餘的 資質으로서 充分히 作用한 處문에 連音으로 なる 例가 있게 되었고, ‘ㅎ’보다도 ‘자잇소리’ 等을 介入시켜서 더 活用했기에 連音化가 發展했다고 본다.

10. 濟州 方言을 通해서 볼 때 先行語 末音이 有聲音이고 後行語 첫소리가 破裂·破聲 等音일 때 後行語 첫소리를 有氣音化 시키는 ‘ㅎ’은 個人音이며, 文獻語에 代比도 可能하다고 보며, 插腰·接腰音과도 一致한다.

以上에서 濟州 方言을 通하여 ‘ㅎ’의 介入을 文獻語에도 對比시켜 보았다.

## 參 考 文 獻

1. 金公七(1968)；〈濟州方言의 特異性(下)〉，「제주도33」(제주：제주도)。  
 \_\_\_\_\_ (1977)；「方言學」，(서울：正南出版社)。
2. 金敏洙(1952)；〈음助詞研究〉，「국어국문학1」，(부산：국어국문학회)。
3. 金昇坤(1976)；「一般音聲學」，(서울：敎文社)。
4. 金榮教(1965)；「濟州島民謠研究(上)」，(서울：一潮閣)。
5. 金英培(1958)；「[ㅎ]特殊名詞攷」，(서울：東國大學校)。  
 \_\_\_\_\_ (1962)；「[ㅎ]音攷」，(서울：東國大學校)。  
 \_\_\_\_\_ (1965)；〈有氣音音에 대하여〉，「東國語文論集3」，(서울：東國大學校)。  
 \_\_\_\_\_ (1977)；「釋譜詳節第二十三·四註解」，(서울：一潮閣)。
6. 김영송(1981)；「우라달 소리의 연구」，(서울：과학사)。  
 \_\_\_\_\_ (1980)；「國語 方言學」，(서울：東雪出版社)。
7. 金龍卿(1981)；「國語學論集」，(서울：東雪出版社)。
8. 金完鎭(1981)；「國語音韻體系의 研究」，(서울：一潮閣)。
9. 金亨奎(1962)；「國語學概論」，(서울：一潮閣)。  
 \_\_\_\_\_ (1971)；〈제주도방언〉，「국어교육연구2」，(제주：제주도교육위원회)。  
 \_\_\_\_\_ (1979)；「增補國語史研究」，(서울：一潮閣)。  
 \_\_\_\_\_ (1981)；「國語史概要」，(서울：一潮閣)。
10. 南廣植(1960)；「古語辭典」，(서울：東亞出版社)。  
 \_\_\_\_\_ (1982)；「國語學論文集 重版」，(서울：一潮閣)。
11. 朴明采(1973)；「高麗歌謠의 語釋研究」，(서울：宣明文化社)。  
 \_\_\_\_\_ (1971)；「論說 月印千江之曲(上)」，(서울：正音社)。  
 \_\_\_\_\_ (1977)；「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서울：高天出版社)。  
 \_\_\_\_\_ (1979)；〈韓國文字發達史(中)〉，「韓國文化史大系V」，(서울：高天民族文化研究所)。
12. 朴容후(1960)；「제주방언연구」，(제주：동원사)。
13. 徐暎錫(1981)；〈中世國語의 喉音研究〉，「韓國文學研究Ⅲ」，(서울：韓國文學研究會)。
14. 石宙明(1947)；「濟州島方言集」，(서울：서울신문사)。  
 \_\_\_\_\_ (1968)；「濟州島隨筆(4)」，(서울：寶晉齋)。
15. 沈在箕(1982)；「咸語語彙論」，(서울：集文堂)。
16. 安秉謙(1979)；〈韓國語發達史(中)〉，「韓國文化史大系V」，(서울：高天民族文化研究所)。
17. 俞昌均·姜錫沆(1963)；「國語學史」，(서울：民衆書館)。
18. 劉昌淳(1964)；「李朝語辭典」，(서울：延世大學校出版部)。  
 \_\_\_\_\_ (1971)；「李朝國語史研究」，(서울：宣明文化社)。
19. 李基文(1980a)；「國語音韻史研究」，(서울：塔出版社)。  
 \_\_\_\_\_ (1980b)；「國語史概說」，(서울：塔出版社)。
20. 李吉麗(1978)；「國語文法研究」，(서울：日新社)。
21. 李勇德(1968)；〈15世紀 國語의 된소의 考〉，「李崇寧博士 國壽紀念論叢」。
22. 李崇寧(1961)；「中世國語文法論」，(서울：乙酉文化社)。  
 \_\_\_\_\_ (1977)；〈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國語學論文選6」，(서울：民衆書館)。  
 \_\_\_\_\_ (1979)；〈韓國 方言史〉，「韓國文化史大系V」，(서울：高天民族文化研究所)。

23. 李熙昇(1961a) ; 「한국 맞춤법 통일안 강의」, (서울: 新丘文化社).
- \_\_\_\_\_ (1961b) ; 「國語學概論」, (서울: 民衆書院).
24. 張泰鎭(1980) ; 「國語社會學」, (서울: 釜雪出版社).
25. 全在昊(1973) ; 「朴訥齋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26. 趙在勳·朴仁英(1979) ; 「국어의 본질론」, (서울: 이우출판사).
27. 鄭恩祭(1981a) ; 「韓國語音韻論」, (서울: 開文社).
- \_\_\_\_\_ (1981b) ; 「國語聲調의 關한 研究」, (서울: 一潮閣).
28. 趙健相(1981) ; 「해설 역주 諺文志」, (서울: 釜雪出版社).
29. 趙현배(1961a) ; 「한글강」, (서울: 경음사).
- \_\_\_\_\_ (1961b) ; 「우리말본」, (서울: 한글사).
30. 千時權·金宗澤(1977) ; 「國語意味論」, (서울: 釜雪出版社).
31. 李一勇(1961) ; 「龍飛御天歌」, (서울: 正音社).
- \_\_\_\_\_ (1979a) ; 「우리말본」, (서울: 정음학사).
- \_\_\_\_\_ (1979b) ; 「國語音韻學」, (서울: 경음사).
32. 玄容駁(1957) ; 「한글插腰音의 對하려」, 「韓文文化」3, (리주: 윤종각출판사).
33. 玄容孝(1962) ; 「濟州島 方言研究(上)」, (서울: 精研社).
- \_\_\_\_\_ (1971) ; 「濟州島 方言의 韻」, 「교육과학」17, (리주: 김주도 교육진흥회).
34. 黃基榮(1979) ; 「韓國語音韻論」, (서울: 三友出版社).
35. 朴仁英·金芳澤譯(1968) ; 「音韻學原論」, (서울: 一潮閣).

— Summary —

## A Study of Infix -ㅎ

— Cheju Island Dialects —

by Sang-jo Song

(1) In Cheju dialects, when a compound words form between a part of speech and a part of speech, the sound of escorting word appears as a phenomenon of aspirated sound.

The formation of aspirated sound is considered as intervention of 'ㅎ' sound, whose nature and function the study is to comprehend.

(2) The sub-sound of antecedent is voice sound, while the first sound of escorting word is plosive and affricate. The combination of a part of speech and particle is consistent in archaic words.

(3) The main cause of intervention of 'ㅎ' sound affects the interval sound by existence of length or by pause of sound.

The function between 'ㅎ' sound and interval sound is consistent.

The intervention of 'ㄱ, ㅋ, ㆁ, ㅌ, ㅍ' is fortis, while the intervention of 'ㅎ' is an aspirated word.

(4) The same phenomenon could be found in the archaic word.

(5) Consideration of change of sound in accordance with intervention of 'ㅎ' sound in the archaic word is a sort of stress.

The intervention of 'ㅎ' sound by particle is to stop a changing sound of sub-sound of antecedent in order to make clear a syllable border.

(6) The length of sound in Cheju dialects doesn't affect discrimination function, so many aspirated words appear when compound words are formed.

The function stress of 'ㅌ' word create development of fortis.

When compound words are formed in archaic word, we can not find exemploray words of aspirated word. That was development of use in interval sound. That was the action of length of sound or word function.

---

(7) The 'ス' of interval sound or 'セ' sound was affected by grammatical consciousness and 'セ' sound was a sound affected by spontaneous generation.

(8) The infix sound is consistent in view.